

Sulwhasoo

VOL.66 MARCH/APRIL 2015

VOL.66

Sulwhasoo

Sulwhasoo

MARCH/APRIL 2015





순화 69×61.5cm Acrylic on canvas 2014 석중헌

살아 있는 모든 생물이 북풍한설에 움츠릴 때, 저 스스로 간난신고(艱難辛苦)를 이겨내며 맑은 향기와 고운 자태를 피워내는 꽃, 매화(梅花). 고결한 기품과 절개의 상징임은 물론이요 고고한 선비의 모습으로, 청초하고 순수한 여인으로 비유되기도 하였다. 이렇듯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매화가 석중헌 작가의 그림 속에서 또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상징과 의미로 다시 피어나고 있다. 꽃으로의 중심적 주체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하나의 상징적 매개체로, 작품 안에서 또 다른 주체를 이끌어가는 연결고리로 사용되는 것이다. 매화로 인해 순화되는 그리고 정화되는 과정을 거치며 탄생한 석중헌의 매화는 컬러풀한 색채 위에서 봄바람에 흩날리는 동적인 감성으로 표현되었다.

작가 석중헌은 매화와 함께 꾸준하게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매화가 지닌 군자의 덕목과 문인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 전통적 표현 기법을 바탕으로 하면서 뿌리기와 번지기, 점찍기 등 우연한 효과로 화면을 구성하고 그렇게 구성된 공간 안에서 자연스럽게 매화가 포치될 수 있도록 표현한다. 매화가 담고 있는 많은 이야기는 시각적 매화가 아닌 개념적 구성체로 구분되어 하나의 객체로 완성되는 매화를 작가적 회화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작가는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 세계적 쟁점, 구조 방식에 대해 매화를 인용하여 우리가 현재 풀어야 할 문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작가의 새로운 매화 탐구는 평면과 입체를 비롯한 좀 더 다양한 형식으로 확산되어 시도될 예정이므로 다음 행보가 기대된다.

When all living things crouch in the coldness of the northern winds, plum blossoms endure all such hardships all by themselves to bloom with clear fragrance and beauty. Plum blossoms symbolize sublime dignity and integrity, and are often compared with the nobility of traditional Korean scholars and women of purity and innocence. Plum blossoms with so many stories are blooming again in the paintings of artist Suk Jong Hun, with a different message of symbolism and meaning. The plum blossoms are used as links that haul the subject matter in the artwork as a symbolic medium. Suk Jong Hun's plum blossoms are born through a process of refinement and purification with plum blossoms, and expressed with dynamic sentiments that scatter with the spring breeze on top of glamorous colors.

The artist uses plum blossoms to suggest the issues we need to solve and the directions we should take with regard to the conflicts, global issues, and structural systems of the complicated modern society. The artist's next steps deserve your attention, as his new exploration of plum blossoms will expand to more diverse styles, including 2D and 3D.

Sulwhasoo

MARCH/APRIL 2015

진정한 아름다움의 가치를 실현하는 글로벌 홀리스틱 뷰티의 정수, 설화수

설화수는 순행하는 자연의 이치로부터 지혜를 얻고, 자연에서 나고 자란 진귀한 원료로 참된 아름다움을 만들어낸다. 내·외면의 균형 잡힌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설화수. 수천 년 아시아의 지혜가 담긴 전설적인 한방성분을 현대 피부과학으로 재창조하여 피부 안팎을 총체적으로 케어하는 궁극의 피부 솔루션을 제공하며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아주는 홀리스틱 뷰티를 선사한다. 3000가지 원료에서 찾아낸 설화수 고유의 원료인 '자음단'과 설화수만의 독보적인 효능을 가능케 한 한국의 우수 원료 '인삼' 그리고 첨단 피부과학을 통해, 설화수는 한국을 넘어 세계에 홀리스틱 뷰티의 가치를 전파하고 있다. 2015년 현재, 설화수는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싱가포르, 홍콩,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만, 베트남, 미국까지 전 세계 10여 개국에 진출, 아시안 뷰티 크리에이터로 자리 잡고 있다.

Sulwhasoo gains wisdom from the laws of nature and creates true beauty with precious ingredients grown in nature. It presents the balanced beauty of the inside and the outside. The legendary Korean herbal medicinal formula that distill thousands of years of Asian wisdom are recreated with modern skincare science to provide the ultimate skincare solution, for the comprehensive care of the inside and outside and the holistic beauty of harmony and balance. Sulwhasoo's original 'JAUM Balancing ComplexTM', found from about 3,000 ingredients, coupled with Korea's outstanding ginseng that enables Sulwhasoo's unmatched efficacies and advanced skin science, spreads the value of holistic beauty throughout the world. As of 2015, Sulwhasoo conducts business in 10 countries, including Korea, China, Singapore, Hong Kong, Thailand, Indonesia, Malaysia, Taiwan, Vietnam, and the U.S., as the Asian beauty creator.



Sulwhasoo

VOL.66 MARCH/APRIL 2015

고은여성문화지古恩女性文化誌 Sulwhasoo는
설화수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주)아모레퍼시픽에서
연 6회 발행하는 고품격 VIP 매거진입니다.

발행인·서경배 편집인·류재현
발행처·(주)아모레퍼시픽·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100 시그니처 빌딩
제작·설화수 MC 팀 문의·정유진 02)879-3357
편집·디자인·기아 미디어·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81길 6 기아빌딩 02)317-4921
편집·권지애, 한혜선 디자인·조요형
발행일·2015년 3월 1일(통권 제66호)
사진·GURU visual 02)747-6118
시스템 출력·사빛그래픽
인쇄·(주)태산인쇄 02)853-6574 www.inpack.co.kr 인쇄인·서명현

〈Sulwhasoo〉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Sulwhasoo〉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Sulwhasoo〉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Sulwhasoo〉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펼 치 다

- 08
품격 있는 삶
저마다 다소곳한 옛 여인들의 화장
- 12
피부 섬기기
얼굴 가득 맑고 투명한 빛을 담다
- 16
동서고금이 만나다
사람 없이 사람을 말하다
- 22
新 공간을 보다
한옥과 만난 옥빛 이탈리아 감성
- 28
건너다
홍콩의 익숙한 새로움 속을 걷다



누 리 다

- 36
설화인
살아낸 세월만큼 카메라에 담긴다, 임권택
- 42
어우러지다
전통, 실용과 위트를 담아 일상으로
- 48
설화풍경
깊은 물빛에서 맑은 美를 보다
- 52
설화보감
봄에 피는 주황빛 디저트
- 58
설화수를 말하다
천년 동안 쌓인 적층의 기운으로
꺾이지 않는 아름다움을 품다
- 64
디자인 기행
마티스의 혼과 숨결이 살아 있는
로사리오 예베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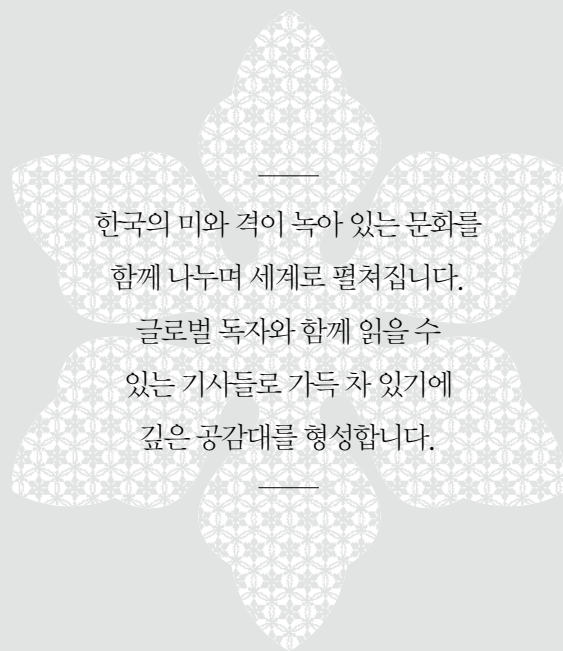


익 히 다

- 72
배움의 기쁨
소박함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의 향기를 찾다
- 78
한국의 멋
고운 빛깔과 모던한 감성의 스타일
- 82
읽다
현대 산수화의 감각적 일탈
- 86
설화애장
무한한 생명의 공간
- 88
집 안 단장
꽃처럼 아름다운 봄을 맞이하다
- 90
몸 단장
내 안으로 들어온 봄날의 컬러
- 92
마음 단장
19세기 낭만 발레 그대로, 지젤
- 94
설화 헤리티지
조화와 균형, 그 아름다움



- 95
설화수 뉴스
- 96
문화 즐기기
- 98
독자 선물



한국의 미와 격이 녹아 있는 문화를
함께 나누며 세계로 펼쳐집니다.
글로벌 독자와 함께 읽을 수
있는 기사들로 가득 차 있기에
깊은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펼
치
다

저마다 다소곳한 옛 여인들의 화장 *The Modest Make-up of Traditional Women*

아름다움을 향한 열망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지만 화장 문화는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바뀌어왔다.
화려하게 혹은 소박하게, 미美라는 주제 아래 다양하게 변주된 우리의 화장 문화를 더듬어보자.

글 박경수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최서윤(다락)

옛사람들의 화장 문화를 그 어떤 문헌보다 또렷하게 보여주는 건 고구려의 고분벽화다. 연지로 단장한 붉은 뺨과 입술은 그 시절에도 색조화장이 널리 성행했음을 확인시켜준다. 중국의 <수서>에 따르면 “백제에서는 분은 바르되 연지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아름다운 몸에 아름다운 정신이 깃든다고 믿었던 신라는 화장술뿐 아니라 목욕 문화와 향초 문화까지 고도로 발달한 미의 왕국이었다. 중국에서 건너온 ‘연지’는 연나라에서 나는 붉은 꽃을 원료로 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다. 한반도의 삼국은 중국의 문화를 흡수하여 저마다 개성 있는 화장 문화를 일구며 그것을 다시 일본으로 전파했으니, 요즘 아시아를 휩쓸고 있는 ‘코스메틱 한류’는 일찍이 삼국시대부터 시작되었던 셈이다. 통일신라의 화려한 화장 문화는 고려시대로 접어들면서 절정에 이르렀다. 고려의 기녀들은 하얗게 분을 칠한 다음 또렷한 반달눈썹을 그리고 뺨에 연지를 바르는 짙은 ‘분대화장’을 즐겼고, 여염집

The tomb murals of Goguryeo represent the make-up culture of traditional people more clearly than any other historical record. The red cheeks and lips with Yeonji (rouge) tell us that color make-up was widely popular back then.

Yeonji was introduced to Korea by China and so named because it was made with a red flower from the State of Yan. The three empires in the Korean Peninsula adopted the Chinese culture to develop their unique make-up culture and spread it to Japan. It can be said that the ‘Korean Wave of Cosmetics’ that has struck Asia dates back to the Age of the Three Empires.

Unified Silla’s glamorous make-up culture climaxed in the Goryeo Dynasty. The dancing girls of Goryeo preferred heavy ‘powder make-up,’ for which they applied white powder over their face, shaped their eyebrows like a half moon, and applied Yeonji on their cheeks, while ordi-



매트한 표면의 리운드형 찬기와 접시는 정소영의 식기장.

여인들은 연지를 바르지 않는 옅은 '담장'을 선호했다고 한다. 조선시대엔 유교의 영향으로 화장 문화가 한결 소박하고 담백해졌다. 사대부 여인들은 옅은 복숭앗빛 분으로 은은하고 수수한 화장을 했는데, 이는 새하얀 분에 붉은 연지를 바르는 기생이나 궁녀들과 차이를 두기 위해서였다.

고대 일본에는 치아를 까맣게 물들이는 '치흑'이라는 풍습이 있었다. 또 헤이안 시대(8~12세기)엔 눈썹을 뽑고 이마에 새로운 눈썹을 그리는 풍습이 있었다. 이는 화장 문화가 번성했던 에도 시대(17~19세기)까지 이어졌는데, 당시 눈썹 밀기와 치흑은 기혼 여성의 상징으로 통했다. 흔히 일본의 전통 화장법으로 알고 있는 가부키의 독특한 화장법은 배우가 아닌 일반인들의 화장법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아시아의 화장 문화는 이렇듯 나라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이어져 왔다. 그중 우리 화장 문화의 첫 번째 원칙은 자연스러움이었다. 한민족의 옷과 집과 음식이 그랬듯, 화장 또한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여겼던 것이다. 21세기 메이크업의 화두인 '내추럴리즘'도 알고 보면 우리의 전통 화장 문화에 그 맥이 닿아 있다는 얘기가 다. S

nary women preferred humble 'Damjang make-up' without Yeonji. In the Joseon Dynasty, the make-up became very humble and simple with the influence of Confucianism.

Ancient Japan had the custom of 'teeth darkening,' wherein they stained their teeth. In the Heian Era (8th-12th centuries), the people plucked their eyebrows and drew in new eyebrows on the forehead. These customs continued until the Edo Era (17th-19th centuries), in which make-up flourished. At that time, eyebrow shaving and teeth darkening were the symbols of married women. The famous traditional make-up style of Kabuki is different from the make-up of commoners.

Asia's make-up culture has developed in various ways. The first principle of Korea's make-up culture was particularly natural. As with the clothing, housing, and food of the Korean people, our Korean ancestors believed that natural make-up was the greatest virtue. In this respect, 'naturalism,' the keyword for make-up in the 21st century, traces its roots to the traditional make-up culture of Korea.



눈빛보석경대는 진주셀 비치 노리개는 경기도무형문화재 제18호 옥석장 김영희 작품으로 KCDF갤러리숍, 옥으로 된 가락지와 뒤꽂이, 비녀 모두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37호 옥장 엄익평 작품으로 가원공방.

얼굴 가득 맑고 투명한 빛을 담다 *Reveal Translucent Inner-glow*

에디터 권지에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최서윤(다락) 일러스트 임성구



겨울의 무거움을 벗고 모든 것이 가벼워지기 시작하는 봄이 찾아왔다. 화사한 햇살을 맞이하는 반가움으로 한달음에 달려 나가고 싶지만 자꾸만 머뭇거리게 되는 이유, 꽃을 피우게 하는 영특한 봄별일지라도 그 속에는 피부에 해를 주는 요소들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해가 길어지고 온도가 높아진 만큼 증가한 자외선과 적외선이 피부를 칙칙하게 만드는 멜라닌을 활성화시켜 전체적으로 피부색을 어둡게 만든다는 것.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만큼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기 없는 안색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중요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채 간과했기 때문이다. 설화수 자정미백에센스는 자외선과 적외선 등의 외부 자극으로 인한 열과 그로 인해 생기는 얼굴의 노란기와 붉은기를 잡아주어 피부를 맑고 밝은 톤으로 케어해준다. 인삼에서 유래한 미백 성분인 백삼사포닌, 생기 있는 피부로 가꾸어주는 백화사설초, 백삼 1000kg 중 60~70kg만 존재하는 백삼다당체는 자정미백에센스의 핵심을 이루는 성분으로, 자연스럽게 피부 광채를 선사한다. 설부화용홍(膚花容), 눈같이 흰 살결과 꽃같이 아름다운 얼굴은 자정미백에센스와 함께 더욱 곱고 맑은 아름다움의 꽃을 피우게 될 것이다.

As sunlight takes longer and the temperature increases, UV rays and IR rays activate the melanin that makes the skin dull, to darken the overall skin tone. You know this too well and do everything you can to prevent it. However, why are you still stressed by a complexion that looks dull and lifeless? That is because you have overlooked the major cause. Sulwhasoo Snowise EX Whitening Serum restore the clarity and brightness of the skin within care heat from UV rays and IR rays that leads to the yellowness and redness of the face. Snowise EX Whitening Serum is mainly formulated with white ginseng saponin for whitening, White Cloud Grass™ for a vibrant skin, and with white ginseng polysaccharides, a rare extract. White ginseng polysaccharides are so rare that only 60~70kg can be extracted from 1,000 kg. This formula works naturally brighten the face.

자정미백에센스

열에 대한 피부의 힘을 키워 맑고 환한 안색을 선사하는 에센스로,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흡수되어 모든 피부 타입에 잘 맞는다. 아침 저녁 자정수 사용 후 손바닥에 2~3회 펴핑하여 피부를 따라 손끝으로 퍼 바른다.



그동안 프라이머나 비비크림, 파운데이션과 컨실러 등 복잡한 과정을 감행한들 만족할 만한 커버력과 촉촉함을 느끼지 못했다면, 설화수 퍼펙팅쿠션이 윤기는 물론 완벽한 피부 표현을 위한 실현 가능한 이상향을 제시한다. 파운데이션이 갖고 있는 한계를 넘어 자연스러운 커버는 물론 스킨케어의 촉촉함까지 담은 퍼펙팅쿠션에는 설화수만의 비법으로 만들어진 행인 한방 보습제가 함유되어 있다. 행인 한방 보습제로 피부 깊숙이 전달된 수분감은 얼굴 전체에 윤기와 탄력을 부여한다. 이러한 보습력은 건조해지거나 흐트러짐 없이 12시간 동안 지속되는데, 피부 위에 얇고 유연한 필름 막을 형성시켜주기 때문이다. 또한 파운데이션의 색소를 오일이 아닌 물에 분산시키는 수채화 공법을 이용해 뭉침 현상 없이 주름 사이까지 균일하고 섬세하게 발린다. 스스로 빛이 나는 밝고 화사한 얼굴은 퍼펙팅쿠션 브라이트닝으로 생기를 더하여 완성할 수 있다. 봄철 화사하게 만개하는 목련 추출물이 피부를 환하게 밝혀주고 빛을 받으면 더 밝고 더 영롱한 빛을 발하는 비결은 실제 오래전부터 귀한 원료로 쓰인 진주모 콤플렉스 때문이다. 이렇듯 퍼펙팅쿠션 브라이트닝은 화사하고 맑은 안색과 더불어 매끈한 피부를 선사해주는 완벽한 제품이다. S

Sulwhasoo Perfecting Cushion, which goes beyond the limitation of a foundation for natural coverage and hydrating skincare, contains Sulwhasoo's original Korean herbal medicinal hydrating formula. It has a high hydrator content and deeply hydrates the skin for overall radiance and elasticity. Its hydrating capacity persists for 12 hours without dryness or collapse because it forms a thin and flexible barrier on the skin. With its watercolor technology, wherein the foundation pigments are diffused in water instead of oil, Sulwhasoo Perfecting Cushion is applied smoothly without lumping and spreads evenly and delicately over wrinkles. Perfecting Cushion Brightening can add vitality to a radiantly bright face that shines naturally for perfection. The extracts of Magnolia denudate, which have been selected for a brighter skin, are exceptional for their prevention of age spots and their correction of the tone and smoothness of the face. The secret to brighter light under light is the mother-of-pearl complex, which has been used for a long time to make precious gemstones. It is known to leave the skin brighter and cleaner.

퍼펙팅쿠션 브라이트닝 (SPF50+ / PA+++)

피부를 환하게 밝혀주고 맑게 정화시켜주는 브라이트닝 쿠션. 자외선 차단, 미백,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

퍼펙팅쿠션 (SPF50+ / PA+++)

퍼펙트한 커버력과 보습 지속력으로 윤기와 탄력을 선사하는 멀티쿠션 파운데이션. 자외선 차단, 미백,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

**퍼펙팅쿠션
사 용 법**



Step 1
기초화장 후 파운데이션 단계에서 사용. 커버력이 높은 만큼 퍼프로 적당량만 취해줍니다. Use as a regular foundation after face makeup. Apply an appropriate amount with the puff, as it offers great coverage.



Step 2
탄력 있는 제형으로 내용물을 얼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뿔기듯이 두드려 발라줍니다. It has an elastic texture, so apply it with a patting motion from the center of your face to its contours.



Step 3
힘이 가장 약한 네 번째 손가락을 이용, 톡톡 두드려 자극 없이 흡수되게 도와줍니다. Use your weakest ring fingers to pat the face for smooth penetration without stimulation.

사람 없이 사람을 말하다

Ingo Baumgarten

잉 고 바 움 가 르 텐

그는 우리 입장에선 지우고 싶은 개발 시대의 상징인 '1980년대 한국 건축물'을 캔버스에 끌어들었다. 흥미로운 점은 그의 작품 속에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다만 사람이 짓고 깃든 공간만이 존재한다. 그 시대, 정작 우리가 놓친 그 무언가를 소재로 말을 건네고 있는 그의 화법이 새롭다.

글과 진행 최태원 사진 전재호



Motorway bridge blue green, 100x80cm, 2014.

프랑스, 일본은 물론 한국에서도 건축물을 핵심적인 오브제로 삼고 있다. 25년 이상 하나의 오브제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가 궁금하다. 건축물은 단순한 무생물이 아니라 엔지니어링과 디자인 혹은 미학이 집약된 대상이란 점에서 흥미롭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인간의 일상과 문화 그리고 사회라는 공동체의 정서에 관심을 갖고 있고, 그것이 집약된 것이 건축물이라고 믿으며, 그런 관심을 회화란 장르로 표현하고 있다. 도시의 건축물은 그 자체로 하나의 개인이자 집단이고 문화이며, 난 그것이 생산하는 풍경에 매료당한 작가이다.

우리의 일상에 주목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작품 속에서 사람이 배제된 것인가? 예를 들어, 어떤 할머니의 초상화를 그렸다고 치자. 그건 너무 개인적인 메시지이고 직접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반면에 건축물을 보여준다는 건 일반적이지만 상당히 포괄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은 골목의 풍경을 이루고 있는 건축물을 일상 속에서 항상 마주치지만 미학적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내가 발견한 미학적 디테일을 그들에게 전달하려는 것이 의도이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건축물을 중요한 오브제로 삼는 데는 3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건축미학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건축에 대한 개인적 관심도가 높기 때문이며, 마지막으로 한시적 생명력을 가진 건축물에 대한 기록적 의미가 두루 내포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한국인은 유럽의 고색창연한 건축물에 동경을 갖는 반면, 우리의 건축물에 대해선 무관심하다. 우리 건축물은 어떤 점에서 아름다운가? 유럽의 고건축물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건 그 역사성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한국의 건축물은 급속도로 근대화에 다가가려 했던 지난 시대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되었다는 측면에서 유럽의 건축물과 성격이 다르

Your main subject is Korean architecture, as well as architecture in France and Japan. Why do you focus solely on the object for over 25 years? Architecture is anything but ordinary as it is an interesting combination of engineering, design, and aesthetics. I am interested in people's daily life, culture, and the emotions felt off the community and from society. Architecture is the intensive result of them. I see architectures in urban landscape as equal as an individual or a group, even a culture. I am fascinated by landscape and choose to depict it onto paintings.

Why do you rule out painting people while focusing on daily life? For example if I draw an older lady, that is too direct of an artistic approach and also could be too personal of a message sent to the viewer. However, if I show architecture, it can deliver a more general yet broader message. People meet with architecture everyday and that consists of an urban landscape, but they don't see it as an aesthetic object. It is my intention that I would like to deliver aesthetic details on architectures to audiences. There are 3 reasons I choose architectures as my main subject. First, I see them in an aesthetic point of view. Secondly, I personally have a deep interest. Lastly, I want to document them as a landscape archive from daily life.

다. 개인적으로 학교 근처에서 집을 구하기 위해 많은 건물들을 둘러봤다. 그때 보았던 고층 아파트 등 최근의 건축물은 도대체 매력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1970~90년대에 지어진 마당을 낀 단독주택들을 보곤 기뻐서 소리를 지를 뻔했다. 당시의 집들을 보며 구겐하임 미술관을 지은 프랭크 로이 라이트의 영향을 받기도 했음을 확인할 수 있어 흥미로웠다. 한 가지 안타까운 건 기후에 강한 테크닉을 가진 전통 한옥의 유전자가 이어지지 않고 실종되었다는 점이다. 확실한 건 한국의 주택들은 내가 목격한 일본이나 대만 등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는 보지 못한 유니크한 측면이 있다는 사실이다. 다만 그런 아름다운 주택들이 길가의 큰 건물들에 가려 쉽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안타깝다.

작품 속 오브제인 개인주택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작가로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주택의 장식적 스타일은 당시의 건축가나 건축주가 중요하게 생각한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다. 그것은 전통과 새로운 가능성인 근대에 뿌리를 둔 한국의 비전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주택들이 가졌던 넉넉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변화하고 있다. 테라스나 발코니 같은 외부 공간은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 실내 공간으로 흡수되었고, 단일 가구를 위한 주거 공간은 새로운 소유자에 의해 여러 가구가 쪼개어지고 있다. 마당이 주차장이 되고, 급기야 빠르게 철거돼, 단순한 디자인의 상업용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물론 다양한 기술적 경제적 이유가 있다는 걸 알지만 근대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한국 건축의 특별한 양식이 사라지는 건 아쉬운 일이다.



Green railbridge Susek Gajwa, 100x80, 2014.

Koreans admire traditional architectures in Europe, but we are indifferent to our own architectures. In what way have you found the beauty in them? European architectures are beautiful in that it maintains its history inside. On the other hand, Korean architectures reflect strong desire of rapid modernization from the past developing generation. Korean architectures are influenced by Western style as well. For example, Frank Lloyd Wright is considered an important architect here. When I looked for houses, I looked around at the many houses in the Seokyo area. Big modern apartments did not attract me at all, but I almost cried out when I found houses with gardens built between the 1970s~1990s. Traditional Korean architectures are well designed to adjust to climate changes, but unfortunately the techniques do not seem to be inherited into now. One interesting thing about Korean architecture is that it often hides the old original building inside.

The houses in your painting are disappearing and becoming obsolete. How do you feel about that? The ornamental style of a house contains messages with architectural values. It must be a new vision combining old traditions with modernization. It valued on leasurable and luxurious spaces, but that is all changing now. Exterior spaces like a balcony and terrace are absorbed inside as a house is dividing into segments. Gardens are changing into parking lots, or into commercial spaces. I understand there should be economic reasons behind this change, but it is truly a pity that unique Korean architecture style in modern age is obsoleting.

자국이 아닌 외국에서 이방인으로서 작가 생활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작품 활동을 하는 공간의 차이는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다른 점이 있다면, 각기 색깔이 다른 여러 도시에서의 경험이 넉넉한 예술적 자극제가 되고, 익숙한 일상의 조각이라 현지인의 관심 밖에 있던 대상을 찾아내는 즐거움이 있다.

작가이면서 동시에 교수란 직업을 갖고 있다. 한국 학생들은 어떤 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가장 큰 특징은 독일에 비해 3~4년 정도 빨리 예술을 전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의 경우, 군대를 제대한 뒤 그림을 시작했고, 다른 친구들 역시 본격적인 학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른 직업을 갖거나 여행 등을 통해 많은 경험을 하고 미술에 입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한국 학생들은 보편적으로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고, 어떤 학생들의 경우엔 탁월한 재능이 있다. 하지만 뛰어난 재능을 가진 학생임에도 정작 삶의 목적이나 자신이 추구하는 예술의 지향점이 불분명해, 중도에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를 보았다. 재능이 오히려 밧이 된 케이스라고 생각한다.

앞두고 있는 전시회에 대한 소개와 이후 계획에 대해 듣고 싶다. 당장은 2월 27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미갤러리 서울에서 열리는 <point of view>란 개인전 준비에 전념할 계획이다. 7년 전부터 거주해온 한국에서 만난 건축물들이 이방인인 나의 시선을 통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엿볼 수 있는 전시가 될 것이다. 이번 전시로 인해 관객들이 내 작품 속에 등장하는 건축물을 자신의 일상 속에서 다르게 볼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작가로서 큰 행복이 될 것이다. 확정된 건 아니지만 광주 비엔날레 참가도 고려하고 있고, 서머 스쿨 기간 동안 베이징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예정이다. S

What does it mean to you working as an artist in a foreign country? I don't feel a big difference in terms of working space, but it is my pleasure to pin out inspiring pieces of life that used to be out of native people's interest. Also, having lived in a diverse and colorful city helps me cultivate inspiration.

You are also a professor here. How would you describe Korean students? Korean students tend to start art earlier than European ones. They start art right after graduating from high school. In Germany, students tend to experience other things like traveling or taking other jobs before starting art which is roughly 3 or 4 years later than Koreans. For example, I did military service before I started art. Korean students I meet in Hongik Univ. are generally talented and they are technically very developed. But they often do not understand their goal of life. In that case, I think their talent can function as a trap.

Please tell me about your exhibition plan. The main event I plan on having in the near future is an exhibition titled "point of view", from 27th Feb to 25th March at Hanmi Gallery Seoul. It will be the show that presents Korean architectures depicted in my own point of view as a total stranger. I hope it will give audiences a chance to see architectures they see in their life differently. I will be very happy with that result. I will also teach this summer in Beijing.



크고 작은 화분들과 그의 손때 가득한 도구들. 그리고 문 위까지 빼곡히 걸려 있는 작품들이 어우러진 작업실 풍경.



시모나 카레나 씨의 집은
 카페가 자유로워 공간의 확장
 성이 있는 가변적 구조라는
 한옥의 장점을 그대로 취했다.
 거실과 대청마루, 주방이
 하나로 통하되 필요에 따라
 분리되는 효율적인 구조다.

한옥과 만난
 옥빛 이탈리아 감성
*The Jade-colored
 Italian Sentiment on
 a Korean House*

서울 북촌이 한눈에 들어오는 삼청동 비탈진 뒷길, 이국적인
 한옥 풍경에 저절로 발걸음이 멈춰진다. 한옥의 장점은 그대로
 살리되, 유럽의 감성을 더한 이곳에서 배우는 진정한
 '집'의 의미에 대하여.
 에디터 한혜선 사진 이종근



“한옥과의 인연은 사진 한 장에서 시작되었어요. 제가 봐온 일반적인 집의 형태가 아닌 외형에서부터 선이 살아 있기 그 매력에 바로 빠져들었죠. 그런 한옥을 많이 볼 수 있는 삼청동에 처음 방문한 날, 바로 결심했죠. 제 감성을 더한 한옥을 짓겠다고.”

2006년 결혼해 올해로 9년차를 맞는 시모네 카레나(47)와 신지애(37) 부부. 건축가로 활동 중인 시모네 카레나 씨의 한옥에 대한 사랑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넘쳐흐른다.

오래된 문화를 보존하는 것으로 유명한 이탈리아인의 정신도 한몫했지만, 한옥을 보는 순간 첫눈에 반한 그는 고유의 가치와 전통을 지키되 자신만의 감성과 감각을 더한 새로운 도시형 한옥을 짓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한옥은 관리가 힘들다는 주변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과 취향이 비슷한 아내의 든든한 지원 속에 면적만 겨우 28평, 건평은 12평 정도 되는 땅을 구입해 한옥 스케치를 시작했다. 집을 사는 공간이 아닌 투자처로 생각하는 주변 한국 사람들에게, 이 집을 디자인하며 서울의 도시형 한옥이 지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은 속내도 있었다.

“집을 짓기로 결심했을 때 제와 아내 그리고 앞으로 늘어날 가족의 행복과 미래를 생각하며 건축을 시작했어요. 그래서인지 어디 하나 애정이 가지 않는 곳이 없답니다.”

시모네 카레나 씨가 처음 이 집을 봤을 때는 지붕 일부 기와를 빼고는 한옥의 모습을 찾기 어려웠

1 거실에서 안방으로 향하는 통로에 있는 연두색 계단이 지하 작업실로 내려가는 공간이다.

2 거실 옆 철제 타공판으로 꾸민 아이들의 놀이 공간 코너에 한옥과 어울리지 않는 반사경을 두어 넓은 시야를 확보함과 동시에 공간에 재미를 줬다.

“My affection for Korean houses began with a photograph. I was instantly fascinated by the house’s charm because it was different from the ordinary houses I had known and had unique lines. When I first visited Samcheong-dong, where many Korean houses can be found, I made up my mind to build Korean houses that reflect my personality.”

Simone Karena (47) and Ji Ae Shin (37) have been married for nine years, since 2006. Simone Karena, the architect, has had a deep affection for Korean houses for a long time.

Despite other people advising him that a Korean house is difficult to maintain, he purchased a 28-py lot with a floor space of only 12 py, with the strong support of his wife who shares his taste. Then he began sketching a Korean house. He wanted to design this house and prove the new possibility of urban-style Korean houses in Seoul for Koreans who think of houses as investments and not merely places to live in.

“When I decided to build a house, I thought about my happiness and future and those of my wife and the family we will build together. So every corner of the house is precious to me.”

When Simone Karena first saw this house, it had almost no character of a Korean house, except for some of the tiles on the roof. It was merely encased in concrete walls and plastic

3 채광을 중요시한 만큼 천장에도 창문을 만들어 집 안 전체를 환하게 했다.

4 지하 공간은 계단 입구부터 연두색을 포인트로 꾸몄으며 위에서 들어오는 햇살로 인해 항상 밝은 분위기다.



벽면 가득 블록 스타일의 책장과 넓은 매트리스로 연출한 책 읽는 공간. 상황에 따라 소파로, 침대로 사용하는 이 공간은 별이 잘 들어 도심 속 망중한을 즐기기에 제격이다.

이종근 작가의 한옥 사진은 미국 터틀(Tuttle) 출판사의 <Hanok-The Korea House>에서도 만날 수 있다.

고, 콘크리트 담과 플라스틱 지붕으로 둘러싸인 정체를 알 수 없는 형태였다. 한옥을 지나치게 있는 그대로만 지키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살기 편한 색다른 한옥 풍경을 그렸지만, 한국의 전통 건축 원리와 고유의 가치는 고수했다. 제일 먼저 담을 허물고 아랫집 기와지붕과 같은 높이의 대청마루를 만들었으며, 처마 높이를 높여 위쪽에 창을 내고, 지하를 파내어 지하 작업실을 만들었다. 문을 열어놓으면 모든 방과 공간이 하나로 통하는 한옥의 매력을 살려, 거실과 주방을 분리하되 하나로 통할 수 있도록 레이아웃을 짰고, 안방과 거실은 북쪽과 동쪽에 놓인 ㄱ자형 공간에 담았다. 대청마루 한가운데는 가로 60cm, 세로 1m 크기의 바닥 유리창을 만들었는데, 이 부분은 지하 작업실의 천장이 된다. 지하지만 천장에 창문을 만들어 답답함을 해소했고, 햇볕과 빛소리를 들이는 오감의 통로가 되었다. 거실 한복판에 데이베드를 두어 가족들이 오붓하게 모여 담소를 나눌 수 있게 꾸몄고, 옥상의 개념인 루프톱을 만들어 한눈에 동네 곳곳을 담을 수 있는 최고의 전망을 만들었다. 구조는 한옥인데 가구 배치나 색상 등 유럽의 감성을 믹스매치한 참신한 아이디어도 돋보인다. 눈을 편안하게 하고 심신을 맑게 해준다는 초록색을 메인 컬러로, 청계천에서 찾아낸 타공판, 볼록 거울, 공업용 집게같이 한옥과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소재를 더한 것도 시모나 카레나 씨가 한옥을 재해석한 방법이다. S

roofing. Simone thought outside the box and envisioned a unique view of a Korean house that is convenient for the dwellers, but he preserved the traditional architectural principles and upheld the value of originality in Korea. He eliminated the walls and gave the main room the traditional level tiled roof of the house next door. He raised the eaves to make the windows higher than usual, and dug up the basement for his studio. As in a Korean house, all the rooms and spaces become one when the doors are open, Simone separated the living room from the kitchen, but interconnected them. The master bedroom and the living room were located in an L-shaped space to the north and east.

Simone placed a daybed in the middle of the living room so that the family can gather to talk, and he designed a rooftop to provide a great view of the neighborhood. The structure is a Korean house, but Simone applied innovative ideas to mix and match European sentiments with the furniture layout and the colors

홍콩의 익숙한 새로움 속을 걷다 *Hong Kong Smearred with the Value of Beauty*

설화수의 깊고 강한 아름다움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건너 나라 홍콩. 열정으로 가득한 일상과 함께한 설화수의 특별한 강인함에 대하여.

에디터 권자에 사진 게타이미지, 코비스

마천루를 형성하며 화려하게 빛나는 높은 빌딩 숲, 긴 그림자를 만들며 까만 밤하늘 위를 돌고 도는 파란색 대관람차, 끊임없이 이어지는 쇼핑 아케이드... 마치 대명사처럼 여겨지는 화려한 야경과 쇼핑만으로 홍콩의 모든 것을 말할 순 없다. 빌딩 사이로 인력거의 바퀴 소리가 들리고 야시장에 선 노점 상인들의 노래하듯 흥겨운 외침 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일상이 빠르게 돌아가는 도시 안에서는 경건함을 자랑하는 오래된 사원들을 쉽게 만날 수 있으며, 구룡반도와 홍콩섬을 오가는 페리를 타고 독서를 즐기며 이른 아침 타이치를 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공원에는 여유가 넘쳐흐른다. 이렇듯 전통과 현대의 감성들이 부딪힘 없이 서로 공존하는 홍콩은 서양의 화려함과 동양의 고즈넉함을 동시에 갖고 있기에 여전히 아시아의 창 역할을 훌륭히 해내고 있다. 홍콩은 2004년에 시작된 설화수와와의 만남으로, 더욱 친근한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한국 브랜드로서의 자부심과 높은 퀄리티의 제품은 짧은 시간 안에 홍콩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그들의 아름다움을 위한 필수 덕목으로 굳건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The colorful night view and the shopping do not tell everything about Hong Kong. You'll hear the sound of wheels rolling from the rickshaw through the buildings, and the non-stop excited shouts of the roadside merchants in the night market. Yet it is easy to find pious old temples in this fast-paced city, and the parks are filled with people traveling on the ferry between the Kowloon Peninsula and Hong Kong, enjoying reading, and doing Tai-chi early in the morning. Hong Kong, where the sentiments of tradition and modernity coexist without conflict, is still fulfilling its role as the window of Asia, as it has both the glamour of the West and the peacefulness of the East. Hong Kong has become even friendlier to us since it welcomed Sulwhasoo in 2004. The pride of this Korean brand and its quality products have quickly captured the hearts of women in Hong Kong.



©Keran Scott/Getty

빨간색 택시 즉 적사의士는 홍콩을 대표하는 아이콘 중 하나다. 화려하고도 강렬한 열정의 색으로, 그들의 삶 또한 색을 닮았다.

홍콩 내 핫 플레이스로 통하는 몽콕Mongkok, 침사추이Tsim Sha Tsui, 코즈웨이베이Causeway Bay, 센트럴Central, 애드미럴티Admiralty에서 설화수 매장을 만날 수 있다. 설화수 베스트셀러 제품은 물론 전문적인 카운슬링을 통한 신제품 역시 만날 수 있다.



홍콩 곳곳으로 펼쳐 나 가다

전 세계 수많은 글로벌 브랜드의 열전으로 언제나 뜨거운 홍콩에서 설화수의 입지는 견고하고 단단하다. 놀랄 이유도 없다. 바로 브랜드에 앞선 제품의 힘이 바로 성공의 키워드였기 때문이다. 2004년 9월 센트럴 빌딩 내 독립 매장 오픈, 세이부 백화점과 2005년 영국 백화점 하비 니콜스 입점 등 고급 쇼핑가를 중심으로 오픈한 설화수는 2009년 다시 한 번 핫 이슈를 만들어내며 많은 이들의 찬사를 받게 된다. 캔톤로드의 4층 규모 플래그십 매장이 이슈의 주인공으로 한국의 전통 문양을 본떠 만든 아름다운 건물 외관은 수많은 플래시 세례를 받았고, 귀한 원료와 설화수만의 과학 기술로 탄생한 제품들은 홍콩인들은 물론 중국 본토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움을 위한 귀한 제품으로 사랑받고 있다. 2009년 6월에는 설화수 스파를 론칭, 다양한 스파 프로그램을 통해 외면은 물론 내면의 평온함에서 오는 진심 어린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다. 현재 스파 2곳, 뷰티라운지 3곳, 그리고 9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Stretching throughout Hong Kong

Sulwhasoo has laid a firm and solid foundation in Hong Kong, which is always hot with the battle of countless global brands from around the world. Having opened an independent store in the Central Building in September 2004 and entered Seibu Department Stores and Harvey Nichols in the luxury shopping district in 2005, Sulwhasoo has earned the acclamation of many people with a new hot issue once again in 2009. The hot issue is Sulwhasoo's four-story flagship store on Canton Road. The beautiful appearance of the building inspired by Korea's traditional patterns keep cameras clicking, and the products it carries, born with Sulwhasoo's precious ingredients and original scientific technology, are beloved by the people of Hong Kong and the tourists from Mainland China as the excellent products for beauty. Sulwhasoo Spa was launched in June 2009 to introduce various spa programs not just for the appearance but also for true beauty from peace of mind. Sulwhasoo is currently operating 2 spas, 3 beauty lounges, and 9 stores in Hong K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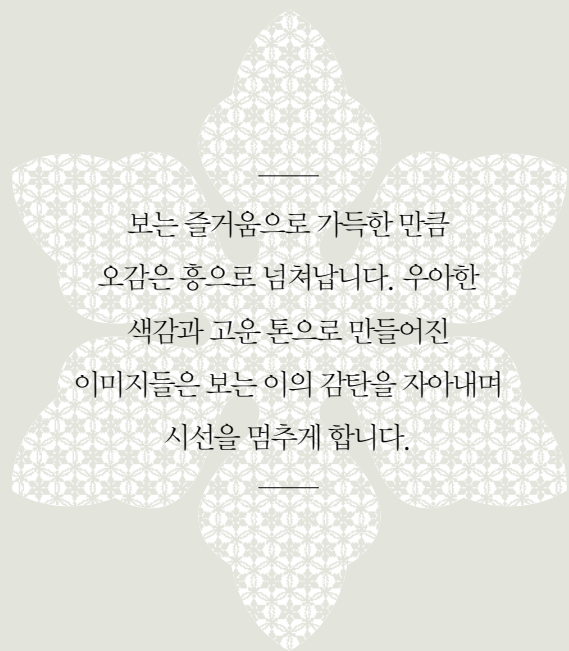
동서양의 문화가 다양한 모습으로 크로스오버되는 홍콩에서는 일상의 모습마저 때로 신비롭게 느껴진다.

홀리스틱 뷰티 케어로 보듬다

홍콩의 사계절은 생각보다 다채롭다. 온도와 더불어 습도까지 높아지는 여름과 선선한 가을 그리고 춥고 매마른 겨울을 지나 봄이 되면 날씨는 다시 따뜻해지지만 중국에서 건너오는 미세먼지와 더불어 에어컨의 전원을 켜며 시작되는 극심한 건조함은 늘 피부의 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외부 환경으로 인해 칙칙해진 안색은 내적 스트레스로 연결되는데 홍콩 여성들의 피부에 설화수는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오피니언 리더들은 물론 셀럽들에게까지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한방이라는 공통적인 연결고리로 친근감을 높이고, 진실성을 담은 귀한 원료를 사용하며 과학적인 시스템을 통해 제품 하나하나에 깃든 강인하고도 훌륭한 제품력은 홍콩 전체를 아우르며 여성들의 피부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더 많은 홍콩 여성들을 사로잡기 위해 설화수는 럭셔리 브랜드로서 가치를 전달하는 작업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상업적인 측면이 아닌 여성의 아름다움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내면의 홀리스틱 뷰티 케어를 통해 한국의 잔잔하고도 강인한 전율을 전할 것이다. S

Care with holistic beauty

The four seasons of Hong Kong are more diverse than you think. The temperature increases with the humidity in summer, the autumn is cool, and the winter is cold and dry. The weather warms up again in spring, but the fine dust from China and the extreme dryness caused by air-conditioning are always bad for the skin. The dull complexion caused by these external aggressors is linked to internal stress, but Sulwhasoo has suggested a clear skincare solution to the women of Hong Kong that has earned the support of opinion leaders and celebrities. The common concept of Korean traditional herbal medicine has made it friendlier to the local people; and the precious genuine ingredients of Sulwhasoo's products, coupled with the company's scientific systems, complete each of its powerful yet nice products for the skin health and beauty of women across Hong Kong. Sulwhasoo is dedicated to delivering its value as a luxury brand to captivate more women in Hong Kong.



보는 즐거움으로 가득한 만큼
오감은 흥으로 넘쳐납니다. 우아한
색감과 고운 톤으로 만들어진
이미지들은 보는 이의 감탄을 자아내며
시선을 멈추게 합니다.

가
리
다





Im

Kwon

임 권 택

Taek

살아낸 세월만큼 카메라에 담킨다

어딘에 접어든 지금도, 그는 영화판에서 매년 '턱걸이'하듯 힘겹게 작품을 만든다며 소박하게 웃었다.
돌아보면 그렇게 반세기를 영화판에서 살았다. 아니, 치열하게 놀았다.

에디터 박지현 사진 박재형

젊은 임권택 vs. 노장 임권택

거장의 출발은 거창하지도 이상적이지도 않았다. 휴전 다음 해인 1954년에 영화관에 뛰어들었으니 애초부터 어떤 자아를 실현하겠다, 이런 그럴듯한 명분일랑 존재할 수 없었다. 먹고사는 문제부터가 시급했다. 영화관에 몸을 던진 것도 부산에서 군화 장사를 하다가 '여기에서 일하면 먹고는 살지 않겠냐' 싶어서였다. 곳은 일 마다하지 않고 스태프로 일하다가 1962년에 드디어 액션물인 <두만강 아 잘 있거라>로 감독에 데뷔했다. 운이 따랐는지 데뷔작이 대박이 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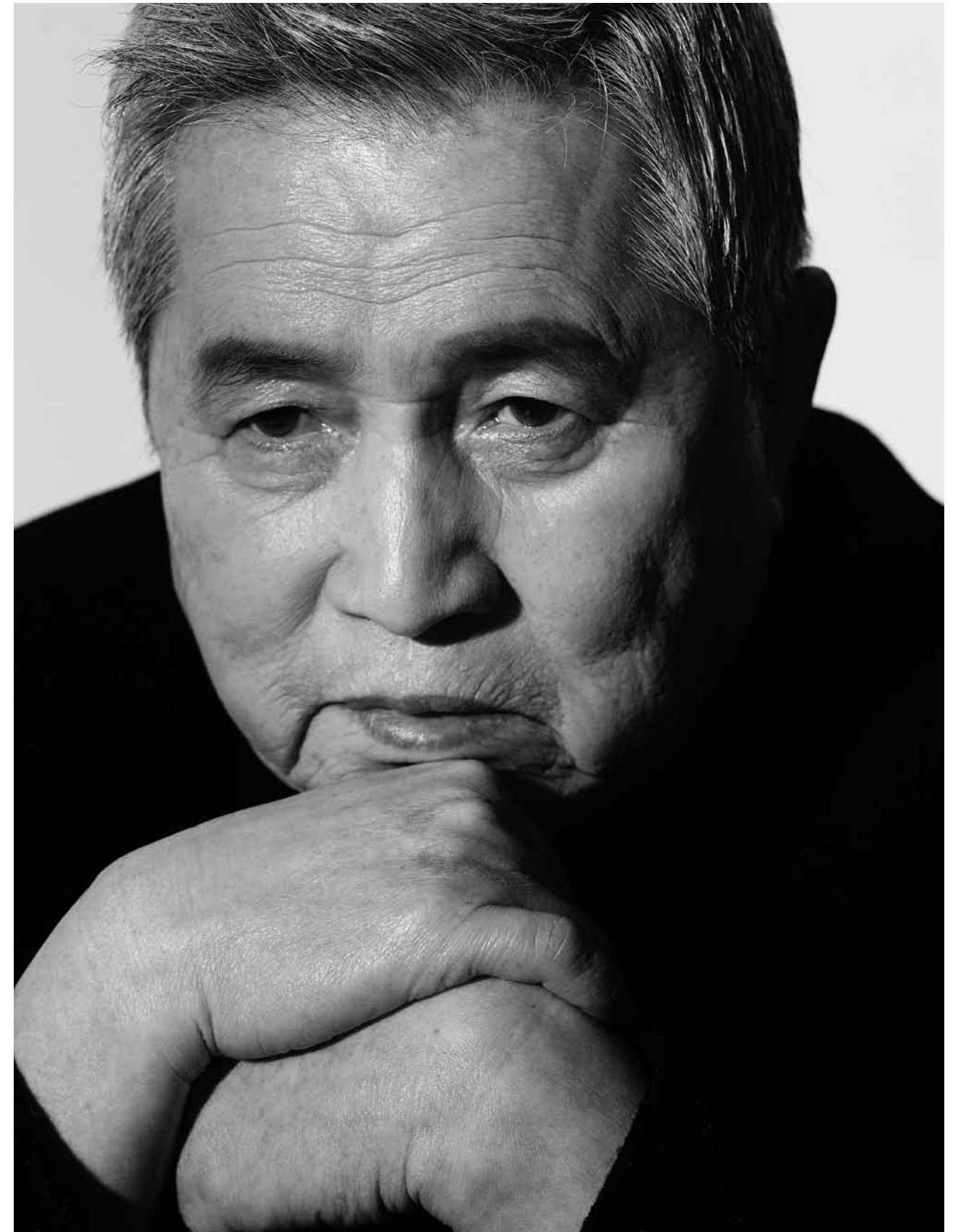
이후 10년 동안 정신없이 50여 편의 작품을 쏟아냈다. 이쯤에서 그는 과거의 일은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다면서 손사래를 쳤다. 과거의 젊은 감독과는 대면하고 싶지 않은 듯 보였다. 이유가 간단했다. 감독으로 데뷔해 마구잡이로 찍은 10년 동안의 작품들은, 정말이지 불태워버리고 싶은 졸작이라는 얘기였다. 심지어 그 부끄러운 초기작들의 일부가 지금은 전라남도 장성에 세워진 '임권택 시네마테크'에 고스란히 '살아 있다'며 걱정도 했다.

"오로지 흥행을 목적으로 마구잡이로 작품을 찍었지. 당시에는 할리우드 영화에 심취해 있어서 그 아류작이라도 만들자 싶었거든. 제대로 된 시나리오도 없고 제작 환경도 신통치 않았는데 말이야. 빠르게는 10일만에 촬영을 하고 이후 녹음과 검열을 끝냈으니 한 달만에 작품 하나를 세상에 내놓았던 거지. 무엇보다 영화 소재가 우리의 삶과는 영 동떨어진 이야기였어."

변화는 감독 데뷔 10년 차를 넘기면서 서서히 찾아왔다. 임권택 감독은 어설프게 남 흉내를 내는 대신 한국인으로서 풀어야 할 만한 이야기를 찾았다. 이때부터 우리의 정서나 문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신기하게도 방향을 바꾸면서 그의 작품들이 세계의 관심과 찬사를 받았다. 1981년 <만다라>가 베를린영화제 본선에 진출한 것을 시작으로, <길소뜸>이 베를린영화제 본선에 다시 진출했고 <씨받이>로 베니스영화제 여우주연상(강수연)을 획득했다. 이후 칸영화제 감독상, 베를린영화제 명예황금곰상을 수상하면서 '거장'이란 칭호가 따라붙었다. 흥행에서도 강했다. 감독 스스로 '이 영화는 관객을 모을 수 없다'고 제작자에게 말했던 <서편제>가 당시로서는 놀라운 숫자인 100만 관객을 모았다. 생각해보면 지금의 거장 임권택이 있기까지는 스스로 숨기고 싶어했던 '젊은 감독 임권택'이 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102 번째 작품 <화장>

오는 4월 개봉하는 102번째 작품은 김훈 소설을 원작으로 삼은 <화장>이다. 투병 중인 아내를 극진히 간병하는 화장품 대기업 중역이 젊은 여직원에게 속수무책으로 빠져드는 이야기다(이쯤에서 그는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이 여러모로 지원을 해주었다며, 특히 원작까지 꼼꼼하게 읽고 와서





조언까지 해주어 감사했다고 말했다. 어쨌든 지금껏 한국적 전통이나 문화에 집중했던 그로서는 매우 낮은 선택이었다.

“명필름에서 <화장>이라는 소설을 주면서 영화화하면 어떻겠냐, 제의를 해왔지. 생각해보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틀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겠구나 싶었어. 화장품 회사에서 벌어지는 요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본 적은 한번도 없었거든. 그래서인지 굉장히 힘들었어.”

노장이 세삼 영화 찍기에 어려움을 호소한다면 누가 믿을까. 하지만 아무리 거장이라 하더라도 매 작품마다 어깨에 짊어지는 불안의 무게가 있다.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남자의 ‘정신적 추이’를 어떻게 좇아가고 풀어낼 것인가에 쏠렸다. 아내가 죽음과 가까워질수록 다른 여인에게 빠져드는 남성의 내면 갈등을 어찌 영상화할 것인가 말이다.

“이제는 이런 얘기를 다뤄보고 싶다는 욕구가 생긴 게지. 영화감독은 딱 살아낸 세월만큼만 카메라에 담을 수 있거든. 지금의 내가 100살 먹은 사람의 인생을 담을 수도 없고, 젊은 사람의 세계를 이 나이에 와서 그린다는 것도 가당치가 않잖아. 젊어서 찍었던 영화들을 지금 돌아보면, 다 그때 하고 싶었던 소재들이었어. 나는 딱 그만한 나이를 찍고 있었던 게지.”

치매에 걸리지 않으면 계속 영화를 찍어야지

반세기 동안 100편이 넘는 영화를 찍었으니 그의 삶은 대부분 영화에 바쳐진 셈이다. 세삼 인생과 영화를 구분할 필요도 없고 그럴 재간도 없다. 촬영장에 동행한 채령 여사의 증언도 빛나가지 않았다. 임권택 감독은 세상살이와는 완전히 외떨어진 사람이라한다. 단적으로 지금까지 관공서에는 한번도 간 적이 없고, 서너 번 이사를 하면서 집을 얼마에 샀는지 묻거나 따진 적도 없었다. 세상과의 소통이라면 오로지 채령 여사의 몫이었다. 그는 영화 찍을 궁리만 했다.

“누군가는 내가 100편 넘게 영화를 만들었으니 무슨 노하우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쉽게 찍을 거라고 짐작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 갈수록 힘들어. 솔직히 매번 영화 작업을 퍽걸이하듯 해내고 있거든. 요즘은 몸이 늙어서 더 힘들고(웃음). 그러니 이웃이 어떻게 사는지, 영화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통 모를 수밖에.”

한번은 당뇨가 있어서 병원에 갔다가 진지하게 의사에게 자신의 걱정을 털어놓았다. ‘지금처럼 철저하게 건강을 유지하다간 진짜 100살까지 사는 거 아니냐?’고 말이다. 다행히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면, 자신이 아는 것이라곤 영화뿐이니 계속 영화를 만들고 싶다. 하기가 그의 소망은 이미 임권택 시네마테크 한쪽에 적어놓은 바 있다. ‘한국에서 나고 살아온 감독으로서, 이 땅의 삶과 문화적 개성을 영화라는 작은 꽃으로 피워내 그 꽃밭을 채우겠습니다.’S

메이크업 조원경(엔플로에 02-517-9111) 헤어 진우(엔플로에) 스타일리스트 안수명 도움주신 곳 아르코발레노(02-514-9006) cm900(02-542-0385) 마리아푸르케(02-546-7764)

전통, 실용과 위트를 담아 일상으로

전통의 감성이 울퉁이 흐르되 현대 아티스트만의 개성적인 감각과 디자인을 담아 만들어진 작품들은 실생활에서 실용 아트의 참된 맛을 발산한다.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정수로 탄생한 한지와 도자의 색다른, 그리고 새로운 아름다움.

에디터 권지에 사진 이종근

왼쪽부터 도자 디퓨저는 주에디션, 흠이 파여 있는 원형 접시는 LVS.CRAFT, 오각 합은 김덕호 작품으로 LVS.CRAFT, 커피컵과 원형 접시는 와사리, 촛대는 이지현 작품으로 스페이스두루, 삼각뿔 도자 오브제와 저그는 정소영의 식기장, 도토리 접시는 주에디션, 백자 줄무늬 그릇과 물잔 세트는 조명식 작품으로 스페이스두루, 사각 종이 접시는 정다운 작품으로 이베카, 세라믹 플레이트는 철타원, 입구가 넓은 저그는 정소영의 식기장, 지오메트리 화병은 징별랑, 통굽 흑유 원형 접시와 합은 이동식 작품으로 자연공감도, 매트한 블랙 잔은 윤남 작품으로 스페이스두루, 받침은 aT.DESIGN, 세라믹 플레이트는 철타원, 손잡이가 달려 있는 블랙 합과 블랙 포트, 블랙 식기 받침은 모두 aT.DESIGN.



왼쪽 심플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도자 램프는 김성철 작품으로 LVS,CRAFT, 마치 꽃잎이 흐드러지듯 문양이 아로새겨진 잉크병과 만년필은 권성은 작품으로 KCDF갤러리숍, 러프한 표면이 유니크한 램프는 김명례 작품으로 자연공감도, 유연하게 디자인된 화이트 도자 문구 세트는 권성은 작품으로 KCDF 갤러리숍, 오른쪽 각각 다른 사이즈라 다용도 받침으로 사용 가능한 접시는 와사라, 한지로 만든 문양 보자기는 지희승 작품으로 KCDF 갤러리숍, 내추럴한 감성을 지닌 넓적한 한지 불은 김정순 작품으로 종이나무갤러리, 동적으로 디자인된 삼각형 접시는 와사라, 끝을 접어 올려 만든 종이 접시들은 정다운 작품으로 이베카, 낙엽 모양으로 만든 트레이는 김현주 작품으로 KCDF갤러리숍, 창호 문양의 한지 스티커는 서말하 작품.

생활 속에서 함께 어우러지다

손에 닿는 순간 만든 이의 감성이 그대로 전해지는 도지와 한지 실용 작품들은 생활 속 여러 곳에서 미학과 더불어 소품이 주는 실용성을 마음껏 뽐내고 있다. 주변에서 볼 수 있었던 친숙한 재료로 만들어낸 오브제들은 손맛과 함께 디자이너의 아름다운 감수성으로 쓰임의 미학을 새로 쓰고 있다.





한지, 아트에 스며들다

전통의 깊은 결과 손길이 깃들여진 한지는 소재만으로 훌륭한 문화이자 길이 남을 예술 작품이다. 그런 한지로 만든 생활 소품들은 소품 이상의 진중한 의미를 지닌다. 정형화되지 않은 형태와 표면은 보는 이로 하여금 친근감을 불러일으키며 옆에 두고 보고픈 애장품이 되기도 한다. 다른 소재와 무던하게 어울리는 너그러움, 한지는 무던함 속에 특별함을 지닌 소재다.



왼쪽 마치 모자를 연상시키는 유니크한 디자인의 조명 것은 유보영 작품, 장식용 구슬이 달려 있으며 깊이감 있는 불은 김정순 작품으로 종이나무갤러리, 단단하게 물 먹인 한지로 모던하게 만든 스톨은 소동호 작품으로 NNN, 간단한 소품이나 책 등을 넣을 수 있는 반달 모양의 바스켓은 빈컴퍼니. **오른쪽** 평면의 종이 한지를 오리가미 접기로 입체화 한 형태의 조명은 소동호 작품으로 NNN, 리드 미컬하게 이어진 면 분할이 포인트인 페이퍼 베이스 커버는 챗터원, 갈대와 대나무, 바가스 필프를 주원료로 만든 종이 와인컵과 컵모트는 와사라, 돌레가 내추럴하게 마감처리된 한지 불은 김정순 작품으로 종이나무갤러리.

스타일리스트 최서윤(다락) 어시스턴트 손예희, 이동욱, 김아영 도움 주신 곳 종이나무갤러리(02-766-3897), NNN(02-790-5799), 빈컴퍼니(070-7557-9491), 정소영의 식기장(02-541-6480.) 주에디션(02-3444-0668), 짐블랑(070-7803-3798), LVS,CRAFT(02-2234-7475), 와사라(02-512-5879), 스페이스두루(02-783-1354), 이베카(02-322-4544), 챗터원(070-8881-8006), 자연공감도(02-762-5431), a.T, DESIGN(02-517-0756), KCDF갤러리숍(02-733-9041)





깊은 물빛에서 맑은 美를 보다

투명한 듯 깊고 짙은 품성을 가진 물이 빛을 받아 잔잔하게 번지며 또 다른 아름다움을 그려낸다.

에디터 권지에 사진 전재호



승고한 삶을 담은 자개의 메시지

자개의 친란한 반짝임은 눈부신 이상과 꿈을 담은 자연의 문양이다.
거친 돌 조각을 품어 고운 진주로 다듬어내는 조개의 삶. 그 승고한 힘이 모두에게
아스라이 와 닿는다. 조각가 · 화가 **김유선**



청송백자의
기백과 온화한 맑음

흙이 아닌 도석을 빚어 맑고 깨끗한 물과 함께 태어난 청송백자는
눈처럼 흰 설백색을 띠며 단아한 선으로 완성된다. 장인의 고된 인고의 시간 속에서
고귀한 빛감이 살아 있다. 사기장 **고만경**

어떠한
외풍에도 흔들림 없는 힘

흔들리거나 무너짐 없이 단단하게 세워진 장벽은 피부를 보호하는 동시에
피부 스스로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어찌 보면 여자보다 연약한 남자들의 피부.
설화수 MEN 본윤에센스와 본윤유액은 깊이감이 다른 보습력과 안티에이징 케어를 위한
확고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봄에 피는 주황빛 디저트 *The Orange Desert that Blooms in Spring*

미각에 꽃을 피워줄 주황빛 디저트들은 보는 것만으로도 큰 즐거움을 더한다.
아름다움을 보고, 달콤함을 음미하고, 봄은 흥을 돋우며 기운을 샘솟게 만드는 계절의 디저트다.

에디터 권지에 사진 이종근 푸드스타일리스트 김정미(K.ONE)





빛깔은 조금씩 달라도
피부를 保하고
눈을 맑게 하는
朱黃一色

미각을 돋우기 전, 시각에서 오는 감정들이 긍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눈으로 먹는 컬러 푸드 중에서 주황색은 눈이 상큼함을 먼저 알아챌 만큼 독특 튼다. 당근, 오렌지, 망고, 파프리카 등 주황색 푸드에는 알파카로틴, 베타카로틴, 크립토크산틴 등이 함유되어 식욕을 왕성하게 해주며, 소화 작용을 돕는다. 또한 비타민C가 풍부해 면역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요 환경오염으로 인한 독성을 없애주는 만큼 디톡스 요리의 재료로 각광받고 있다. 봄철, 강해진 햇빛에 노출된 피부 회복에도 큰 도움을 준다.

차, 주스 또는 스무디 지친 피부에 활력을 주는 만큼 따뜻하게 차로 만들어 자주 마시는 것이 좋다.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라면 주황색 야채나 과일 등을 통째 갈아서 만든 주스나 과일을 얼려 갈아 만든 스무디 또한 지친 심신에 활력을 부여한다.

당근 푸딩 신토불이 당근만큼 영특한 것이 또 있으랴. 당근 주스를 이용해 만든 푸딩은 라이트한 디저트로 모두에게 부담 없다. 우선 당근을 작게 잘라 소량의 물과 함께 믹서에 갈아준 후, 체에 받쳐 당근 주스만 걸러낸다. 물에 불린 젤라틴 3장을 약한 불에 끓인 당근 주스에 넣고 휘핑기로 저어 준다. 국자로 그릇에 옮겨 담아 냉장고에서 굳히면 완성이다.

오렌지 타르트 상큼한 오렌지는 깨끗이 닦아 껍질 부분만 벗겨낸 뒤 안쪽의 흰 부분을 도려내고 잘게 채썬다. 시럽에 채썬 오렌지 껍질과 오렌지 과육의 즙을 짜 넣어 졸여 필링을 만들어준다. 구워낸 타르트 틀에 오렌지 필링을 채우고 토핑으로 오렌지, 레몬, 라임 과육을 올려 완성한다. S

Among the food colors that captivate the eyes, orange is one of the most appealing colors of freshness. Orange foods such as carrots, oranges, mangoes, and paprika contain alpha-carotene, beta-carotene, and cryptoxanthin that stimulate the appetite and promote digestion. They are rich in Vitamin C that enhances the immune system and are used to prepare detoxifying dishes that eliminate the toxicity caused by environmental pollution. They are also great for restoring skin that has been exposed to strong sunshine in spring.

Tea, Juice, or Smoothie Orange foods energize tired skin, so it is good to drink them regularly as warm tea. If your body is usually hot, the juice of orange vegetables or fruits, or a smoothie made of frozen fruits, can also boost your tired body and mind.

Carrot Pudding Korea-grown carrots are probably the smartest food. The pudding made with carrot juice is a light and tasty desert. Chop a carrot and juice it up with some water in a mixer. Strain the juice to remove the carrot bits. Add three sheets of gelatin soaked in water to the simmered carrot juice, and whip the mixture. Then scoop it into a cup or mold and harden it in the refrigerator.

Orange Tart Wash and peel an orange. Then remove the white parts inside and chop the orange. Add strips of orange peel, squeeze the juice into syrup, and simmer it to make the filling. Bake the tart sheet and fill it with the orange filling. Top it with orange, lemon, and lime to taste.

달콤한 듯 새콤한
洋菓子로 미각을 일깨우다



천 년 동안 쌓인 적송의 기운으로 꺾이지 않는 아름다움을 품다

아시아의 지혜가 응축된 전설적인 한방성분과 피부를 위한 최적의 과학이 만나 탄생했다.
뛰어난 효능의 혁신적인 안티에이징 제품으로 진설 라인과 자여진에센스의 깊은 생명력을 소개한다.

에디터 권자에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최서윤(다락) 어시스턴트 손예희, 김아영, 이동욱



나무를 모티프로 하여 정은 금박,
수정으로 만든 오브제는 김경원 작품.



적동, 옷칠로 만든 나무와 물방울
오브제는 김경원 작품.

진설아이크림 Timetreasure Renovating Eye Cream EX

눈가 피부의 주름과 칙칙함을 동시에 케어하고,
적송에서 찾은 피부 생명 강화 안티에이징 성분
DAA가 연약한 눈가 피부를 섬세하면서도 탄력 있게
다스리는 프리미엄 토탈 안티에이징 아이크림. 피부에
도통하게 밀착되어 섬세한 보호막을 형성. 젊고
아름다운 눈가 피부를 완성한다. **How to Use** 아침,
저녁 진설에센스 다음 단계에서 손등에 적당량을 취해
손가락 끝을 사용하여 눈 아래, 옆, 눈두덩 부분에 점을
찍듯 덜어내준다. 관자놀이에 손을 가볍게 대고 피부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 후, 양손의 셋째, 넷째
손가락을 사용해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펴 발라준다.

진 설 수

Timetreasure Renovating Water EX

적층 성분이 건조하고 거칠어진 피부에 즉각적으로 흡수되는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화장수. 미세 입자로 구성된 성분이 빠르고 확실하게 피부 깊숙이 수분을 공급해 촉촉하고 매끄러운 피부를 가꿔준다.

How to Use 아침, 저녁 윤조에센스 사용 후 손바닥에 적정량을 취해 손가락 전체를 사용하여 얼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펴 발라주고 가볍게 두드리며 흡수시켜준다.



적동, 백동, 살리콘, 유리로 만든
오브제는 김경원 작품.

진 설 유 액

Timetreasure Renovating Emulsion EX

적층 성분이 깊은 보습과 영양을 채워 피부결을 매끈하고 유연하게 가꾸는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유액. **How to Use** 아침, 저녁 진설수 사용 후 손바닥에 적정량을 취해 손가락 전체를 사용해 얼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매끄럽게 펴 발라주고 가볍게 두드리며 흡수시켜준다.

진 설 에센스

Timetreasure Renovating Serum EX

적층의 생명력과 피부 방어력을 높여주는 항산화 에너지를 피부에 전해 피부의 방어력을 높이고 기쁨 있게 빛나는 피부 생기를 일깨우는 프리미엄 토탈 안티에이징 에센스. **How to Use** 아침, 저녁 손질 시 진설유액 사용 후 손바닥에 적정량을 취해 손가락 전체를 사용, 얼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밀착력 있게 눌러주는 느낌으로 펴 발라준다.

진 설 크림

Timetreasure Renovating Cream EX

적층에서 찾은 피부 생명 강화 안티에이징 성분 DAA에 송이의 생명력을 더해 세월의 흔적을 이겨내는 건강한 피부 탄력을 완성하는 프리미엄 토탈 안티에이징 크림. **How to Use** 아침, 저녁 진설아이크림 사용 후 손바닥에 적정량을 취해 손가락 전체를 사용해 얼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펴 발라준다.



머리꽃이는 이용무 작품으로
공평아트숍.



자 여 진 에 셴 스
Capsulized Ginseng Fortifying Serum

젊은 피부 관성의 힘으로 깊어지는 주름은 밀어내고 탄력은 끌어올려주는 인삼 캡슐 타입 에센스.

How to Use 아침 저녁 지음수 사용 후 적당량을 손바닥에 펴핑하여 피부결을 따라 손끝으로 자극을 주지 않고 펴 바른다.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얼굴을 감싸 흡수율을 높여준다.

호박잎 브로치는 김준희
작품으로 공평아트숍.



진설 라인 만고풍상 萬古風霜의 시간을 굳건히 버티며 깊은 생명력과 함께 꽃꽂한 기백으로 살아가는 소나무. 그중에서도 귀히더귀한 것으로 꼽히는 붉은 소나무, 적송에서 안티에이징의 해답을 찾았다. 안티에이징 성분인 DAA(De-Aging Active)를 추출, 피부 전달력을 강화시키는 캡슐화 기술을 더해 만들어진 진설 라인은 피부 노화 징후의 감소를 뛰어넘어 피부의 탄력 복원력을 강화한다. 천년의 강한 생명력으로 세월에 꺾이지 않는 젊은 피부를 선사한다.

자여진에센스 설화수 자여진에센스는 인삼에서 추출한 강한 영양분을 캡슐 기술력으로 공급, 피부 탄성 강화는 물론 주름을 차올리며 피부 탄력을 이끌어낸다. 주름이 완화되고 되돌아온 피부 본연의 탄력은 매끈한 피부 표면으로 이어지게 하는 안티에이징 제품이다.

Timetreasure Line Pine trees stand firmly to endure endless adversities and to survive with an unwavering spirit and vitality. The solution for anti-aging has been found in red pines, which are known as the most precious type of pine trees. Timetreasure Line was completed by extracting DAA (De-Aging Active) from pine trees for its anti-aging effect, and by adding the encapsulation technology for better delivery to the skin. Timetreasure Line goes beyond diminution the signs of aging to enhancing the restorative capacity of the skin. The strong vitality of a thousand years gives you timelessly youthful skin.

Capsulized Ginseng Fortifying Serum Sulwhasoo Capsulized Ginseng Fortifying Serum supplies the powerful nutrition extracted from ginseng using the Capsulation Technology to fortify the elastic, and fills the wrinkles within to improve the elasticity of the skin. This is the ultimate anti-aging formula that smoothes wrinkles and restores the natural elasticity of the skin to smoothen the skin's surface.

마티스의 혼과 숨결이 살아 있는

*The
Rosaire Chapel*

로사리오 예배당

에디터 한혜선 사진 코비스, 정태관



색의 미술사로 알려진 프랑스 현대 미술의 거장 앙리 마티스에 의해 탄생한 로사리오 예배당은 규모는 작지만 아름다운 성당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1941년, 72세의 마티스는 건강을 위해 프랑스 남부 산기슭에 자리한 중세 도시 방스로 작업실을 이전하면서 당시 21세였던 간호사 모니크 부르주아를 만나게 된다. 그녀의 극진한 간호를 받으며 건강은 점차 회복되지만 제2차 세계 대전의 여파로 마티스와 모니크는 안타깝게도 이별을 겪게 된다. 전쟁이 끝난 이듬해에 둘은 방스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데, 모니크는 가톨릭 수녀 '자크 마리'가 되어 있고, 마티스는 그녀를 위해 자신의 사비까지 털어 예배당을 건축해 사랑과 고마움을 표현한다. 노년의 화가 마티스와 나중에 가톨릭 수녀 자크 마리가 된 젊은 간호사 모니크와의 사랑을 그린 영화 <마스터피스>를 보면 로사리오 성당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을 수 있다.

마티스가 자신의 사재를 털어가면서 모든 인테리어와 디자인, 미사 제기와 제복을 디자인했고, 시공까지 참여해 탄생한 로사리오 예배당. 마티스 예술의 집대성이 이루어진 곳이라고 해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그가 죽기 전 인생의 막바지에서 그림에 대한 열정을 쏟아부었던 곳이다. 웅장함과 화려함으로 사람을 압도하는 유럽의 어느 성당들과

In 1941, Matisse, who was 72 years old then, moved his studio to Vence, a medieval city nestled at the foot of the mountains south of France, for health reasons. There, he met Monique Bourgeois, a 21-year-old nurse. Matisse gradually regained his health, thanks to Monique's devoted care, but they were sadly parted in World War II. They met again in Vence a year after the war, but Monique had become a Catholic nun with the name Jacques Marie Matisse used his personal savings to build a church for her to express his love and gratitude for her. Masterpiece is a film about the love story of Matisse, an old painter, and Monique, a young nurse who later became the Catholic nun Jacques Marie. This film tells the story behind Rosario Cathedral, for which Matisse spent his personal savings to design all the interior spaces, fixtures, mass vessels, and costumes. He even participated in the construction of the Cathedral. In the final stage of his life, he dedicated all his passion for

달리 소박하지만,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마티스의 이런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일 터. 건강이 좋지 않았던 그가 병마와 싸우면서도 삶의 마지막 혼신을 다해 만들고 채운 곳이라 더욱 경건하고 성스럽게 느껴진다.

방스의 젓줄인 푸 강이 계곡 위에 있는 다리를 건너면 고급 주택들 사이에 위치한 로사리오 예배당을 만날 수 있다. 조용한 시골 동네의 작은 예배당은 마티스가 직접 그린 성모와 예수를 형상화한 간결한 벽화로 채워져 보는 순간 압도될 만큼 위대하다. 성당 입구에 있는 성도 미니크와 마리아에게 안긴 예수님은 흰 타일 위에 그린 단순한 드로잉이지만 강렬한 인상을 준다. 성당 안으로 들어가면 스테인드글라스가 돌, 그림이 셋, 모두 다섯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예배당 안에 환희, 고통, 영광 등을 표현한 것으로 묶은 다섯 단을 의미한다고.

제단 오른쪽에 <성 도미니크상>, 오른쪽 벽 중앙에 꽃으로 둘러싸인 성모와 아기 예수 <모자상>, 성당 뒷면 타일 위에 그려진 예수의 고난 열네 개의 그림 <십자가의 행로>는 간결한 스케치로 완성된 그림으

art in Rosario Cathedral, so it is not an exaggeration to say that it is the ultimate compilation of his art. It is humble, unlike other churches in Europe that intimidate people with their magnificence and glamour; but it is unbearably impressive because it cherishes Matisse's devotion. It feels even more solemn and sacred because Matisse built and filled it with all his love while fighting his illness.

Across the bridge over the valley that serves as the lifeline of Vence, you will come across Rosario Cathedral amongst luxurious mansions. This small cathedral in its quiet country town is filled with Matisse's concise murals of the Virgin Mary and Jesus Christ, and awes their viewers the moment they walk into the cathedral. Jesus Christ in the arms of Saint Dominique and Maria at the entrance is a simple drawing on white tiles, yet strongly impressive. As you enter the cathedral, you will see two stained glass images and three paintings. They express joy, pain, and glory, and represent the five

辨

雪花秀

피부 본연의 맑은 안색을 가꾸어 온종일 화사한 피부빛을 지니다

피부 본연의 맑은 안색을 살릴 때 피부는 더욱 환하게 빛이 납니다. 피부를 맑게 정화하고 화사한 피부빛을 선사하는 설화수 퍼펙팅쿠션 브라이팅-목련 추출물과 진주모 콤플렉스가 함유되어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맑고 화사한 피부빛을 완성합니다. 이제, 설화수 퍼펙팅쿠션 브라이팅으로 화사함의 격을 높이세요.

근본에서 찾은 더 좋은 대답, 설화수 퍼펙팅쿠션 브라이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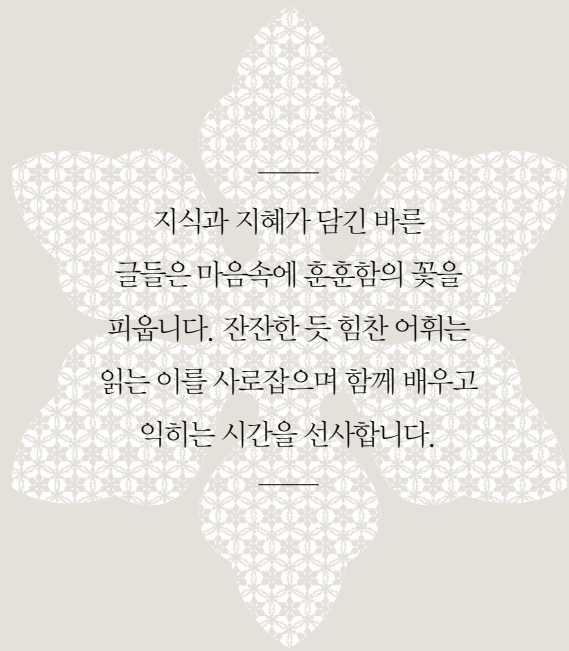
Sulwhasoo



프랑스 니스에서 서북쪽으로 23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방스. 관광객이 드문 한적한 시골 마을로 예스러운 중세 도시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로, 보는 이의 마음을 경건하게 만든다. 성당 제단 위에 있는 여섯 개의 촛대와 좌우로 생명의 나무를 형상화한 스테인드글라스, 눈·코·입이 없이 단순하게 그려진 성 도미니크상도 빼놓을 수 없다. 제단과 십자가 촛대는 모두 마티스가 직접 드로잉하고 디자인한 것들로 그의 열정과 집념을 느낄 수 있다. 자크 마리 수녀가 종이에 초록, 노랑, 파랑 세 가지 색으로 물감을 칠하면 그 위에 마티스가 드로잉하고 종이 오리를 한 다음 벽에 붙여 만들었다는 <생명의 나무>. 지중해의 넘실거리는 파도와 뜨거운 햇살, 나풀거리는 풀잎이 스테인드글라스로 표현돼 '색의 미술사'라 불리는 그의 명성을 제대로 입증하고 있다. "나는 아무런 걱정도 간섭도 없이 그림을 그리는 데 필요한 여건만 마련된다면 독방에서 수도자처럼 살아가고 싶다. 내게 로사리오 예배당은 내 작품에 헌신한 생애의 완성을 의미한다"고 말한 앙리 마티스의 고백. 그의 예술에 대한 열정과 신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예배당 곳곳에 흔적처럼 남아 있다. S

parts of the rosary. To the right of the altar is the Statue of Saint Dominique, and at the center of the wall on the right is the Statue of Mother and Son, surrounded by flowers. The Way of the Cross was completed with simple sketches, but makes each viewer pious. You cannot miss the six candles on the altar; the stained glass panels that represent the Tree of Life on both sides, and the simple Statue of Saint Dominique without the eyes, nose, and mouth. The altar and the cross-shaped candleholder were drawn and designed by Matisse, and embody his passion and devotion. When Sister Jacques Marie colored sheets of paper in green, yellow, and blue, Matisse drew on them, cut out the drawings, and attached the pieces on the wall to create The Tree of Life. The stained glass expresses the surging waves, scorching sunshine, and dancing grass of the Mediterranean to clearly show why Matisse is known as the magician of colors.



지식과 지혜가 담긴 바른
글들은 마음속에 훈훈함의 꽃을
피웁니다. 잔잔한 듯 힘찬 어휘는
읽는 이를 사로잡으며 함께 배우고
익히는 시간을 선사합니다.


다
영
감



소박함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의 향기를 찾다

현대를 사는 이들에게 전통은 지루해 보이거나 너무 어려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타고난 살림꾼 효재의 손을 거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전통의 멋과 가치를 살리면서 현대의 공간과 어우러져 빛을 발하는 것, 그것이 효재식 살림법이다.

에디터 한혜선 사진 이종근

각종 매거진과 방송을 통해 독특하면서 닦고 싶은 효재식 살림법을 선보이며 한국의 '타샤 튜터', '마샤 스텐트'라 불렸던 이효재. 돈이 많아서, 가진 것이 많아서 보여주는 살림법이 아니라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소박한 곳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는 그녀의 생활방식이 많은 여자들의 공감을 샀다. 나무 잎사귀 하나,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 파 뿌리 하나, 심지어 구멍 난 양파 땅 하나 쉽게 버리지 않고 각각 생명력을 불어넣어 존재의 가치를 만드는 효재는 타고난 살림꾼이자 살림 고수다.

결국, 전통이 제일 아름답다

효재는 늘 광목으로 만든 앞치마를 두르고, 그 어떤 물건도 보자기로 스타일리시하게 옷을 입히며, 때가 되면 손톱에 봉숭아물을 들이며 세월을 보낸다.

“외국 문화를 비하하는 것은 아니고 한국 사람인 저는 우리 것이 가장 자연스럽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숨씨 좋았던 어머니 덕분에 어렸을 때부터 전통의 것과 가까이해서 그런지 우리 것에 대한 소중함과 고마움을 잘 알아요. 한복 디자이너가 된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이렇게 살림법으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는 것도 어렸을 때부터 습득한 전통의 아름다움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것을 촌스럽고 고루하다고 여기던 이들의 고정관념을 단번에 깨버리고, 우리의 것이 가장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것임을 전파하고 있는 살림 예술가 효재.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오로지 전통의 것만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 그녀의 살림을 조목조목 살펴보면 다양한 전통 아이템이 준비하지만, 서양 혹은 현대의 것과 적절히 믹스매치해도 어색하지 않고 잘 어울린다는 것이 포인트다. 예를 들어 한국의 백자나 청자 그릇과 함께 덴마크 왕실 그릇 로얄코펜하겐을 그녀만의 방법으로 세팅하면 이질감 없이 잘 어울리고 또 새롭다. 차가워 보이는 스테인리스 냄비도 광목으로 감싸고 보자기로 포장하면 더없이 세련된 살림 선물이 된다. 보수적으로 전통을 고집하지 않고, 유행 있고 재치 있게 풀어내는 그녀만의 살림 노하우는 보고 또 보고, 캐고 또 캐도 무궁무진하다.

효재의 살림 밑천은 끝이 없다

자투리 천도, 뿌리가 꺾인 꽃도 쓸모없다고 버리지 않고 그녀의 식대로 새롭게 탄생시키는 재주는 타고났다. 그녀의 살림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놀라는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이다. 이곳저곳 여행 다니면서 모은 나뭇잎, 작은 돌멩이 하나까지 이 집에서는 천덕꾸러기가 아닌 요긴한 살림 밑천이 된다. 나뭇잎에 메시지를 담아 엽서처럼 활용하기



도 하고, 돌맹이는 수저를 올려놓는 용도로 혹은 광목 행주를 포개 위에 살짝 얹어만 놔두 그림이 따로 없다. 다른 사람들이 쉽게 지나치는 것도 그녀의 눈에는 재미있는 살림의 소재가 되는 것을 보면 이효재식 살림법이 얼마나 기발하고 대단한 것인지 알 수 있다.

몇 년 전 한국에 보자기 열풍을 몰고 오며 '보자기 아트', '보자기 디자인'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보자기를 활용한 다양한 연출법을 소개한 이력만 봐도 그렇다.

"가까운 사람에게 주는 작은 선물 하나도 늘 보자기로 포장하고, 보기 싫은 집 안 물건을 보자기로 연출해요. 저에게는 일상적인 일인데 사람들은 신선하게 보더라고요. 보자기 포장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우리 전통의 색을 표현하고자 화려한 보색과 부드러운 동색 대비 보자기를 선택하고 매듭을 엮으면 끝! 한 송이 꽃을 선물하는 마음으로 보자기 네 귀퉁이를 고무줄로 묶어 꽃 매듭을 만들면 감탄이 저절로 나오죠. 보통 짝 조여 매듭을 묶는데 풀기도 힘들고 모양이 예쁘지 않아요. 그럴 때 혼한 고무줄로 묶어 매듭을 만들면 풀기도 수월하고 모양이 훨씬 예쁘답니다. 포장할 수 있는 아이템도 무궁무진해요. 책과 CD, 베개, 다기, 행주 세트, 신발, 은수저, 외인까지... 보자기로 옷을 입으면 태가 나는 선물이 되지요."

결혼 예단을 포장하느라 손에서 보자기를 놓지 않았던 그녀지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더 많은 활용법을 연구하게 됐고, 어느 순

간 보자기는 귀한 살림의 도구가 되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딱히 활용법을 몰라 치박아두었던 보자기가 요긴하게 사용될 줄은 몰랐다고요. 소소한 것에서부터 재미를 느끼고, 우리 생활에 접목시켜 활용하는 것. 그것이 효재식 살림법에 근간이 되는 기본 정신이랍니다."

자연과 소통하고 즐기는 키포크적인 삶

효재의 살림법은 요즘 유행 열풍을 일으키는 키포크 스타일과 닮아 있다. 아니, 어찌 보면 효재의 살림법을 키포크가 따라 한 것 같다. '키포크'는 미국 북서부 중소도시 포틀랜드에서 출범한 잡지로 이 지역에 사는 부부가 동네 이웃들, 친구들과 함께 자신들의 일상을 수록하는 내용을 잡지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포틀랜드 특유의 생활상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는데, 텃밭에서 직접 수확한 식재료로 친환경 밥상을 차리고, 이웃들과 담장을 허물고 거리낌 없이 식사를 나누어 먹는 등 일상의 소소한 풍경을 담아내는 것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자연스러운 멋과 맛을 실천하고 있는 효재의 삶도 키포크 라이프와 별반 다르지 않다. 각 지역에서 공수한 좋은 식재료로 음식을 만들고, 주변 지인들과 함께 나눠 먹고, 가식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다만 거기





에 보자기, 광목 행주, 한식 그릇, 지수, 한복 등 전통의 소재가 더해질 뿐, 효재식 살림법 역시 킨포크 스타일에 뒤지지 않는다.

“땃밭에 고추, 부추, 연, 땅콩, 토란 등을 심고 나물을 캐가며 시골 살림을 하던 것이 효재 스타일의 근간이 되었죠. 땃밭에서 채소 뜯어다가 반찬 만들고, 연잎 따다가 연잎밥을 쪄 지인들과 나누어 먹는 재미가 꽤 좋았죠. 그저 시골에서 먹는 대로 땃밭에 나는 재료를 가져다가 양념도 거의 하지 않고 맛을 내는데, 먹어본 사람들은 별 재료 없이 똑딱 맛을 냈다며 ‘타잔 요리법’이라 불려요. 음식 맛도 맛있지만 보이는 것에 극성을 부려야 바로 효재 스타일이죠. 냉동실에 넣어두었던 액세서리 같은 재료로 마무리하고, 그릇에 예쁘게 담으면 세프가 만드는 비싼 음식보다 더 귀하게 느껴진답니다.”

새 공간에서 효재식 살림법을 실현하다

효재는 얼마 전 충북 제천에 위치한 친환경 리조트 리솜 포레스트에서 효재식 라이프의 제2막을 시작했다.

“어느 순간 서울 생활이 벽차게 느껴졌어요. 삼청동 조그만 한옥에서 시작해 길상사 맞은편 성북동 집까지, 서울 안에서도 저만의 방법으로 전통을 고수하고 자연친화적인 살림법을 선보였다고 생각했는데 일정 부분 한계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던 중 우연히 리솜 포레스트를

방문하게 됐고, 이곳에서 제대로 효재 스타일을 구현할 수 있겠다는 용기가 생겼죠.”

리솜 포레스트에서의 시작 역시 쓸모없는 공간을 활용해 효재식으로 꾸미는 것이었다. 둥근 구 모양으로 생겨 효재가 ‘달집’이라 부르는 쿡킹 스튜디오는 죽은 나무를 모양 그대로 살려 만든 원형 조각을 탑재한 썬아 다리를 만들고, 그 위에 상판을 올려 그녀만의 식탁을 완성했다. 산속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큼직한 돌덩이들을 모아 장작 화로를 만들었고, 크고 작은 장독대들을 세팅해 뷔페식 테이블을 만들었다. 미미했던 벽은 쇠사슬을 달아 프라이팬, 그릇, 보자기, 옥수수, 시래기 등 그녀의 살림 도구를 하나둘씩 매달았다. 차와 사람의 향기가 가득한 지수방 카페 ‘효재의 뜰’에서도 그녀의 살림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다. 수틀에 광목을 씌우고 지수를 놓아 벽 장식을 하고, 버려진 의자에 광목 방석과 스커트를 입혀 새롭게 탄생시켰는데, 이곳을 찾는 사람들마다 그녀의 아이디어에 감탄을 금치 못한다고.

당분간 그녀는 서울과 제천을 오가며 효재식, 효재 콘셉트의 공간을 만드는 데 매진할 계획이다. 바쁜 스케줄임에도 전혀 힘든 것 없이 살아 있음을 느낀다는 그녀는 타고난 살림꾼임에 틀림없다.

“효재의 손길이 닿아 죽은 공간이 살아나고, 의미가 없던 곳에 의미가 생기고, 가치 없던 것이 소중한건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죠. 별것 없이 ‘살림도 예술이다’ 생각하고 임하면 누구나 효재가 될 수 있습니다.” S

고운 빛깔과 모던한 감성의 스타일

외국에서는 격이 다르게 멋스러운 옷이라며 극찬을 받고 있는 한복.
전통 한복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지만, 새로운 시도로 다양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요즘
한복 역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의 전통 복식 한복은 분명 진화하고 있다.

에디터 한혜선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최서윤(다락) 어시스턴트 손예희, 이동욱, 김아영

한복은 한반도 20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옷이자, 우리의 혼이며 정신이 담긴 문화유산이다. 청·적·황·백·흑 오방색이 골고루 담긴 전통 한복은 복식이기 이전에 우리의 역사와 삶을 잘 반영하고 있다. 최근 들어 한복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부족해 점점 한복을 생략하고, 입었을 때 불편하고 거추장스럽다는 이유로 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역사와 전통을 외면하는 것과 다름없다. 과거를 모르면 현재가 없고, 조상의 문화를 외면하면 현재의 문화도 없는 법.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통을 알아야 하고, 한복을 입는 것이 곧 문화를 지키는 일임을 깨닫고 전통에서부터 현재까지, 한복의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대성과 사회성을 반영한다

우리 문화의 중흥기로 한복이 발전에 발전을 거듭했던 조선 중·후기,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한복이 많은 변화를 겪은 것처럼 현재의 한복도 세대교체와 문화의 변화 속도 때문에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다. 사실 한복은 그냥 의복이 아닌 의미가 담긴 옷이다. 단순히 눈으로 봤을 때 아름다운 옷이 아니라 색에 담긴 의미, 문양이 주는 상징성 등

디자인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고 메시지가 담긴 하나의 예술 작품이다. 기억 속에 사라져가는 전통 한복에 대한 고증을 위해 노력하는 한복 디자이너도 많지만, 요즘 세대들에게 더 다가가기 쉽도록 현대식으로 풀어낸 모던 한복을 선보이는 움직임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전통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세대의 분위기에 맞게 소재나 컬러, 제작 방식의 변화가 일고 있는 것. 요즘 입는 한복은 개화기 이후 스타일이 대부분인데, 활동성과 실용성을 고려해 점점 진화하고 있다. 예를 들면 소매통은 점점 좁아지다가 직선 형태에 가까워졌고, 동정과 깃은 목을 더 감싸는 형식으로 타이트해졌다. 양복처럼 슬림하게 입는 요즘 한복 트렌드에 맞춰 형태의 변화도 생겼다. 또 다소 길어진 조선 중기 스타일의 저고리가 다시 유행 중이며, 웃고름은 매우 좁고 짧아졌다. 치마폭은 넓은 A라인에서 전통 치마 형태인 항아리 모양으로 약간 좁아진 것을 눈여겨볼 수 있다.

소재와 컬러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예전에는 명주, 생사, 양단, 모본단 같은 비단이 인기였다면 요즘은 면이나 쿼트 같은 양장 천으로 한복을 많이 제작한다. 면과 한복 천을 적절히 섞어 만든 소재도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실용성과 활동성을 생각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요즘 한복은 소재 활용의 폭이 넓어지면서 입었을 때 편하고, 맵시 있어 보인



모시와 명주로 만든 파스텔톤의 무지개 속치마는 한복린

다. 컬러 역시 확연히 다르다. 녹색, 빨간색, 파랑색 등 비비드한 컬러가 주를 이뤘다면 요즘은 맑고 화사한 파스텔 톤의 한복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블랙, 그레이 등 아예 톤다운된 컬러로 시크하게 풀어낸 모던 스타일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디자이너의 개성이 가미

‘실용한복’, ‘생활한복’이라는 이름 아래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하는데, 기존 한복 디자이너들로부터 패션 디자이너들이 만들어낸 진화된 한복을 종종 볼 수 있다. 화제가 됐던 것이 2013년 10월, 아름지기 재단의 신사옥에서 열린 <포, 선비 정신을 입다>라는 전시였다. 조선시대 남성 복식 중 가장 대중적인 포를 중심으로 선비의 차림새와 그에 깃든 선비 정신을 들여다본 기획 전시로 김서룡, 정옥준, 진태옥 3명의 패션 디자이너가 재해석해서 만든 옷이 단연 눈에 띄었다.

김서룡 디자이너는 포의 소재에 초점을 맞춰 얇디얇은 실크 오간자를 도톰하게 겹치고 또 겹쳐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무늬를 만들어내 코트와 재킷을 완성했는데, ‘검은 포’와 ‘흰 포’는 작은 움직임에도 농담을 달리하며 마치 수목화 같은 착각을 일으켜 전통을 모던하게 풀어냈다는 호응을 얻었다.

정옥준 디자이너의 경우 가장 현대적 원단인 네뎀과 인류 태초의 의복 소재인 가죽을 함께 엮었는데, 허리가 아닌 가슴을 조이고 가죽 벨트의 끝을 늘어뜨리며 두루마기를 재해석한 코트를 만들어 일상생활에서 입기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스타일리시하고 실용적인 포가 완성됐다. 우리나라 1세대 패션 디자이너인 진태옥은 간결한 선과 면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노방 코트로 포 자락을 만들고, 가죽 코트의 허리 위에 전통 문양 장신구를 포인트로 장식해 눈길을 끌었다. 진태옥 디자이너는 평소에도 한복을 응용한 여러 디자인을 선보이는 것으로 유명인데, 전통 배자를 응용해 만든 실크 블라우스로 누빔 소재와 전통 손바느질을 접목해 전통의 멋은 살리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한복 디자이너들의 활약도 대단하다. ‘담연’ 이혜순과 ‘차이’ 이영진 등

의 한복 디자이너는 서양의 드레스 디자인을 접목한 색다른 한복 드레스를 매거진 등에 소개하며 한복 알리기에 앞장섰고, ‘한복린’의 김민정 디자이너는 세계적인 메이크업 아티스트 바비 브라운과 에스티로더 컴퍼니즈 코리아의 대표이사 가족의 웨딩 한복을 제작하며 외국 저명인사들에게 한복을 알렸다. 신진 한복디자이너인 ‘이노주단’의 오인경은 면과 리넨, 레이스 등의 소재로 한복을 만들고 스트라이프와 도트 패턴을 접목시키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외국인이 극찬하는 한복

한복이 세계적으로 알려진 데는 1세대 한복 디자이너 이영희의 공이 크다. 사비를 들여 뉴욕과 파리 컬렉션에 당당히 진출했는데, 컬렉션에는 전통 의상에 제한이 있어 한복의 디자인과 소재들을 모티프로 완성한 이영희만의 한복을 선보였고, 미국 뉴욕 카네기홀 무대에도 올라 외국 사람들의 극찬을 받았다. 여러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뉴욕 맨해튼에 ‘이영희’라는 이름을 건 한국문화박물관을 연 것도 한복을 널리 알리기 위한 그녀의 노력 중 하나. ‘한복나라’ 이현숙 디자이너도 파리에서 왕실 복식을 주제로 한 패션쇼를 열었고, 2년 전에는 미국 LA 게티 박물관의 초대로 게티 뮤지엄에서 한복 패션쇼를 열어 외국인들에게 한복을 선보였는데 “원더풀!”을 외치는 외국인들의 찬사 속에 감격스러웠다고 회고한다. 하물며 외국 사람들도 한복의 매력에 푹 빠져 있는데, 우리가 한복을 외면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알수록 더 보이고, 애정이 생기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한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한복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사랑하고 자주 즐겨 입음으로써 현재에 맞는 우리 옷 문화를 창조해나가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입기 불편한 옷이 아닌 입기 쉽고 입는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한복, 전통의 기본 틀은 지키되 현대식 취향을 가미한 한복, 다채로운 매력을 뽐내며 점점 더 진화하고 있는 요즘 한복은 세계의 어떤 의상과 어깨를 견주어도 모자람이 없다. 우리 스스로 한복을 즐겨 입고, 세계에 알리는 일, 문화 한류의 첫걸음이 된다. S



레이스와 명주로 만든 당의, 모시와 명주로 만든 배자 모두 한복린

현대 산수화의 감각적 일탈

시대가 변하면서 자연도 변하고, 산수화 역시 격동의 시대를 거치고 있다. 당대의 정신과 물질적 조건, 현실적인 고민을 담으면서도 산수화의 기본 정신을 지키는 것, 한 발짝 더 다가온 현대 산수화는 새로운 변화를 모색 중이다.

에디터 한혜선 글과 사진 이선영(미술 평론가)

전통과 자연, 그 유기적 총체성이 해체된 현대의 산수화

미술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산수화가 풍기는 은은한 맛을 제대로 탐닉할 줄 아는 이는 드물다. 눈으로 봤을 때 비슷하게만 보일 뿐, 작품 내면이 뿜어내는 감동을 알기에는 내공이 꽤 있어야 한다. 그래서 더 어렵고, 매력 있는 작품이 바로 산수화다.

그저 비슷하게 보이는 산수화지만 시대별로 조금씩 변하면서 그 가치를 높이고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이 변하는 만큼 산수화도 변한 것이다. 과거에는 변화의 폭이 작았지만, 현대에 와서 그 변화의 폭은 더욱 커져 이것이 과연 산수화의 계보에 놓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작품도 많다. 이러한 변모의 근본적인 동인은 현대인이 전통과 자연으로부터 멀어진 것에 있다. 특히 짧은 시간 동안 압축적인 성장을 해온 한국 사회에서 전통과 역사에 대한 망각은 강력했으며, 자연 또한 물질적 진보를 위한 도구였을 뿐 쉬이 주위를 둘러볼 여유 없이 삶을 꾸려왔던 것이 사실이다. 인구 대다수가 대도시와 그 인근에 살고, 대표적인 주거 형태는 아파트이며, 그 갱신 주기 또한 매우 빠른 것이 현실. 오래된 가치들은 역사의 뒤편에 남아 잊혀갔고, 산수화 또한 박제가 된 상태를 면하기 힘들었다.

그러나 작가들에게 이러한 단절과 불연속성은 도약을 위한 계기가 되기도 했고, 한편으로 이러한 급격한 삶의 양식 변화가 옛 그림을 더욱 신선해 보이게도 한다. 그러나 정보화 시대에 옛 모델 또한 무한 복제

가 가능해진 시점에서 산수화는 단순한 문화 소비를 넘어 새로운 생성이 필요하다. 새로운 세대는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전래된 관념이 아닌 변모하는 현실이 반영되어 있는 동시대적 작품이 필요하다. 하지만 급격한 변화만이 선은 아니고, 답도 아니다. 예술은 억압된 것들이 회귀하는 무대이기도 하다. 산수화의 정신을 살리면서 어떻게 당대의 정신과 물질적 조건을 충만하게 담을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현대의 산수화 작가들은 그러한 이중적 조건을 풀기 위해 고심한다. 새로운 '산수화'는 우리 삶을 전면적으로 규정짓는 파편화 속에서 자연과 인간이 어떻게 복구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다.

그들은 자연과 인간, 예술이 하나 되는 총체적 우주를 손쉽게 가정하는 관념론적인 해결책을 피하고, 현재의 분리된 상황 그 자체로부터 시작한다.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떨어져 나옴으로써 생겨난 이 분리는 그 최초의 지배적 형태인 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선다. 이때 언어와 욕망의 중요성이 커지고, 이러한 중심 이동은 현대의 '산수화'들의 작품에도 깊이 스며들었다. 인간 대신에 중심이 된 구조적 사유에서 언어는 전면을 차지하며, 언어적 현실 이면에는 욕망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과의 관계를 통한 붓질의 우연한 흐름

작가 차소림의 작품은 구도 자체에서 여백이 풍부한 산수화를 떠오르게 한다. 바람, 구름, 물 또는 붓질처럼 보이는 유동적 흐름들 사이사

이에 사람들이 작게 박혀 있어 신선하다. 3차원 또는 2차원 상에 드문드문 박혀 있는 하얀 것은 언어의 파편. 작가는 언어로 이루어진 상징적 우주로서의 현실에 자연스럽게 동화될 수 없었으며, 그러한 거리감이 이러한 이질적인 풍경을 낳았다. 불연속적 차이는 일련의 흐름을 만드는데, 언어가 기후적 현상으로 나타날 만큼 총체적인 환경이 된 그곳에서 주체의 위상은 미소하다.

작가는 작품 속에 삽입한 사람들의 시선을 통해 일상, 또는 언어의 저편을 바라보게 한다. 일상과 언어 저편에는 신비와 무한이 있다. 유동적인 배경은 광활해 보이며 상대적으로 작은 인간들은 산수 여기저기에서 완보하는 것처럼 보인다. 차소림의 산수화는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 붓질의 우연한 흐름은 산이 되고 강이 되고 바다가 된다. 이걸가 싶으면 저것 같다. 그리고 간극들 사이에서 잠재적 공간이 계속 생겨난다. 거기에는 한 번의 생성이 아니라 연속적인 생성이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막힘 없는 생성을 요구한다.

작가는 산을 그리려 하면 산이 안 그려지고 바람을 그리려 하면 바람이 안 그려지기 때문에, 산이나 바다를 생각하면서 붓을 놀리고, 궁극적으로 산이나 바람이라는 생각조차도 놓고 가려 한다. 산을 알지도 못하고 산을 규정하려 드는 언어적 횡포에 맞서, 산을 알기 위해 스스로 산이 되려 한다. 이러한 '되'의 정신은 산수화가의 필요 조건이다. 존재를 감싸는 불확실한 운무들로 이루어진 야생적 바탕, 불확정적이고 표류하는 공간 속의 생멸하는 것들은 새로운 것을 말하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에 열려 있다.





설악스튜디오

이장배, 267(h)×100×170cm F.R.P, Resin, 2012

Collection

이장배, 80(h)×100×25cm Resin, Wood, 2009

하안공간

김종구, 가변설치. 쇧가루 광목 PV 접착제 Projector CCTV카메라, 2014



가학 피학적인 욕망의 풍경

작가 이정배의 산수풍경은 전형적인 동양화의 지배적인 물아일체나 무아지경 등 관조적인 미학에서 멀리 벗어나 있다. 특이하게 입체로 구현된 그의 작품은 전통을 바탕으로 한 자연의 현 상황을 드러낸다. 여기에서 자연은 깊은 뿌리를 가지는 온전한 전체 또는 본질이 아니라, 단편의 조합이다. 사진이나 플라스틱 모형으로 축소된 자연은 탈색되고 잘려 나갔으며, 인간이라는 이물질에 의해 오염되고 잠식된다. 어수선하게 가지를 뻗는 식물로 대변되는 빈약한 토양의 산물, 그리고 포획을 위해 걸쳐놓은 막과 망들은 자연을 착취하고 소유하려는 인간의 과도한 욕망을 이야기한다.

부분이 전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툭 떨어져 나와 있는 그의 자연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향유하지 못하고 손안에 소유하려는 인간 욕망을 표현한다. 이리저리 잘리고, 수없이 풀리고, 밟거나 그물망으로 포획된 자연은 포르노그래피 속의 파트너처럼 잔인한 쾌락의 대상으로 변모한다. 산수풍경에 배치된 성적 하위문화의 코드는 자

르고 묶고 갈아내고 구멍을 뚫는 식의 거친 방법론이 관찰되었으며, 이러한 산수풍경은 먹을 담백 머금은 붓이 미끄러지듯 나아가며 자연스럽게 형상이 만들어지는 방식과 큰 차이가 있다. 권력과 욕망이 게임의 형태로 얽혀 있는 가학피학적인 관계는 지배적인 가부장제 문명이 어머니인 자연을 다루는 방식을 압축한다. 인간의 쾌락적이고도 폭력적인 규칙은 자연의 한계를 벗어나려는 위반의 충동으로 가득하다. 풍경은 폭력과 위반의 장이 되고, 결코 만족됨 없이 무한정 늘어난 욕망의 흐름은 마찬가지로 공포와 연관된 쾌락인 승고(sublime)와 연결된다. 이정배의 산수풍경에서 욕망의 질주는 거대한 폭력과 권력으로 점철된 또 다른 자연을 향한다.

자연의 언어를 대입한 현대 산수화

작가 김종구는 원래 통쇠를 깎아 형상을 만들던 조각가였으나 계획된 형태로 깎인 덩어리보다는 무엇인가를 깎고 남은 부스러기에 더 관심을 갖게 되면서 쇧가루로 산수화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는 붓글씨 쓰

듯 쇧가루를 바닥에 뿌려 글자를 만드는데, 그것을 측면에서 영상으로 찍어 평면에 투사하면 너른 표면에 펼쳐진 산과 물 같은 형상으로 보인다. 위에서 보면 글자지만, 옆에서 보면 산수풍경이라 더욱 흥미롭다. 미디어의 개입을 통해 관객은 산수화의 여백에 해당되는 공간에 직접 들어갈 수 있다. 김종구의 쇧가루 산수화는 글과 그림이 함께 움직이는 관객의 신체를 작품의 과정에 개입시키는 요즘 산수화다. 이러한 변형에 의해 자연은 언어화되어 읽히고, 언어는 물질적 두께를 획득한다. 자연의 풍경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스펙터클이 의미 없이 소비되는 현대에 대상과 기호를 풍부하게 하는 신선한 방식이다. 최근에는 수성 접착제에 적신 광목 위에 쇧가루를 흘려 풍경이자 글자인 이미지를 보여주는 작업을 한다. 반복되어 흘러내리는 녹물이 만들어내는 고색창연한 풍경은 중력과 산화라는 자연적 과정을 작품에 끌어들이는다. 자연을 대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원소적 차원에서 재구성하고 그 변화 과정을 수용하며 이를 자연, 인간, 역사에 대한 비유적 메시지로 확장하는 모みが 있다. S



무한한 생명의 공간

한복 디자이너 김영석

컬렉터로 유명한 한복 디자이너 김영석은 무수한 소장품 중 정상화 작가의 작품을 애장품으로 꼽았다. 그는 이 작품을 두고 얼핏 보면 단순히 보이는 그림이지만, 그 속에 인간의 삶과 역사가 담겨 있다고 말한다.

에디터 한혜선 사진 이종근

문화와 예술에 관심과 조예가 깊은 한복 디자이너 김영석은 컬렉터로도 유명하다. 개화기 시대의 가구와 병풍, 공예품을 수집하면서 전통 한복을 만드는 데 영감을 얻고, 그 시대의 문화와 예술을 이해하는 데 발판으로 삼았다. 시간이 날 때면 외국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다른 나라의 문화와 예술을 몸소 체험하고 일의 원동력을, 삶의 지혜를 얻기도 한다. 그는 몇 해 전 베니스 여행 때 어떤 그림 앞에서 발걸음을 멈춰야 했다.

“아르헨티나 작가인 루치오 폰타나의 그림과 마주한 순간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캔버스에 칼집을 내고, 칼집 낸 저 선들과 함께 새로운 공간이 나타난다고 말하는 작가의 의도가 무엇인지 마음 깊이 다가왔거든요. 지금 사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고 그 뒤에 또 다른 공간이, 또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한복을 만들며 쉽 없이 달려왔던 그에게 폰타나의 작품은 깊은 감동을 줬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허망함이 있었는데, 작품을 통해 마음의 위안을 얻고 자신의 삶을 다독이게 됐다고. 당장 그 작품을 구입하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고, 여운을 남긴 채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폰타나의 그림을 처음 봤을 때처럼 마음을 움직인 작품을 발견하게 됐다.

“정상화 작가의 <무제> 작품을 보면서 베니스에서 느낀 감동과 여운이 다시 재현됐어요. 이 작품을 멀리서 보면 단지 한 면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모자이크식 네모꼴들이 쌓이고 인접하면서 그 전체가 한 데 어울려 무한히 확산해가는 생명의 공간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

러 번 고민하지 않고 작품을 구입하게 됐고, 제 많은 소장품 중에서 가장 아끼는 애장품이 되었죠.”

정상화 작가는 한국 미술의 흐름을 알아보는 데 반드시 언급해야 할 주요 작가 중 한 명이다. 1950년대 후반 이후 전개되어온 현대미술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 최근까지 큰 영향을 미치며 굳건하게 작품 활동을 해오고 있다. 언뜻 보면 일정하게 덮인 색층만 있을 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작가는 보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소 역설적인 상황 속에서 작품을 이해할 수 있게 배려한다. 작가가 추구하는 미니멀리즘의 화면이 그렇다. 그 작품 앞에서 침묵하게 되고, 성찰을 하게 되며,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입 밖으로 말을 꺼내지는 않지만 그의 작품 안에서 숨소리를 죽인 조용조용한 말, 나를 향해 소곤거리게 된다. 그의 화면이 무기적인 평면이 아니라 숨 쉬는 지표, 유기적인 표면임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김영석은 이 작품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마음의 위안을 얻는다고 말한다. 격동의 한국 근현대사를 거처온 작가가 전달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삶이 또 인생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고 공감하게 됐다고.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약간의 무력함도 이 작품 앞에서는 작아진다.

“정 화백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꼭 저를 다시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그림 앞에 서서 마음속으로 소곤거립니다. 제 자신과 이야기하듯.” S

꽃처럼 아름다운 봄을 맞이하다

창문을 열고 커튼을 걷어낸 집 안에는 따사로운 싱그러움으로 가득하다. 생명의 기운으로 넘쳐나는 봄꽃은 물론이요 푸른 초록 화분은 그 자체로 훌륭한 공간 소품이 된다.

에디터 권자에 사진 문성진



물방울 모양의 아보카도를 그대로 본떠 만들었다. 양쪽에 나뭇잎을 붙여 재미 있게 디자인한 화병은 마치 날개를 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세나구.



툇밭에서 방금 따온 양배추꽃 모양 그대로 화병을 탄생시켰다. 전체적으로 볼륨감 있는 디자인으로 한 송이만 꽂아놓아도 예쁘다. 세나구.



전통적인 도자기의 선을 간결하게 표현했다. 내추럴한 옥빛 컬러로 그린 톤이 강도는 식물이나 꽃을 선택하면 자연스럽게 시크한 멋이 풍긴다. 화병은 광경태 작품, 북촌상회.

봄입니다. 길게만 느껴졌던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다시 찾아온 봄은 신기한 미술이라도 부린 듯, 겨우내 드리웠던 차양을 걷어내며 움츠렸던 시간의 기지개를 켜게 합니다. 살포시 들어선 봄 햇살을 맞이한 집 안 곳곳, 쌓여 있던 먼지를 훑쳐내고 근사한 무언가를 놓고 싶다면 화려하진 않지만 소담한 화병 하나를 놓아보세요. 잘 고른 화병 하나로 생활의 감각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공간의 포인트가 되며 인테리어 소품으로 손색없는 화병은 꽃과 함께 있다면 싱그러움이 배가될 것입니다. 화병 가득 채운 수십 송이의 꽃이든, 화분에 피어난 단 한 송이의 가녀린 꽃이든 피고 지는 자연의 순리대로 작은 자연이 만들어내는 색의 향연은 '바라보며'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마당 없어도 꽃을 보며 안정감을 찾고 위로를 받는다는 말처럼 말이죠.

스타일리스트 최서운(다락) 어시스턴트 손예희, 김아영, 이동욱 도움 주신 곳
틸테이블(02-544-7936), 에이티 디자인(02-517-3011), 에이치픽스(070-4656-0175),
에잇컬러스(070-8654-3637), 세나구(070-7768-5309), 북촌상회(02-743-1470)



뚜껑은 그냥 멋으로 있는 게 아니었다. 꽃을 꽂을 땐 뚜껑을 열고, 꽃이 시들어 잠시 쉴 때는 뚜껑을 닫아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틸테이블.



면을 이용한 기하학적인 패턴이 마치 하나의 작품을 보는 듯하다. 디자인으로 유명한 덴마크 블루밍빌레의 심플한 컬러감과 독창적인 디자인이 돋보이는 화병은 에잇컬러스.



볼드한 디자인의 화분으로, 식물도 좋겠지만 풍성한 느낌의 드라이플라워를 꽂아도 예쁘다. 블록 형태로 되어 있어 물받침이나 수반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 틸테이블.



마치 스케치북에 수채화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듯, 자연스럽게 물들여진 컬러감이 예쁜 화병. 바람 따라 살짝 휘어진 듯한 디자인이 매력적이다. 에이티 디자인.



멀리서 보면 찻잔 같아 보이는 낮은 높이의 미니 화분은 선인장 등 작은 식물들을 심기에 적합하다. 단풍나무 소재의 핵사곤 모양 스탠드 위에 나란히 놓은 세라믹 화분은 에이치픽스.



손으로 그린 듯한 스트라이프 패턴이 포인트인 도자 화병은 입구가 몸체보다 작은 만큼 미니멀한 감각을 뽐낸다. 분수 형태로 꽃을 꽂아두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 에이티 디자인.



스타일리시한 스트라이프 패턴과 씨앗 형태를 모티프로 만든 디자인이 모던한 감성을 물씬 풍긴다. 줄기가 곧은 카라 등의 식물을 꽂으면 더욱 시크한 멋을 풍길 듯. 세나구.



스탠드처럼 책상 위에 놓으면 예쁜 멋을 더하는 민트 컬러 미니 화분. 화분 높이의 1.5배 정도 되는 식물을 심으면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있어 보인다. 슬리드한 컬러와 디자인 틸테이블.



안정감 있는 형태로 낮은 높이의 식물을 심어 커피 테이블 위에 놓으면 인생맞춤이다. 화분 내부에 금색 유약을 발라 눈부신 포인트를 준 사보넨 포트는 틸테이블.

내 안으로 들어온 봄날의 컬러

파릇하게 움튼 새싹을 쑥 빼닮은 산뜻한 옐로와 싱그러운 그린. 충만해진 햇살 안에서 가장 많은 시선을 받는 컬러의 주인공으로 패션 소품과 만나 감각의 빛을 선사한다.

에디터 권자에 사진 문성진



남성 액세서리인 행커치프를 돌보기와 결합. 원하는 모양을 잡아 포켓 속이나 가방에 넣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윤혜림 작품으로 KCDF갤러리.



마치 작은 꽃송이들이 대롱대롱 달려 있는 듯한 귀걸이. 연둣빛 꽃잎 안에 점 찍듯이 표현한 은빛 속내가 멀리서도 눈에 띈다. 같은 컬러감의 블라우스와 잘 어울린다. KCDF갤러리.



양파 껍질로 천연염색을 했기에 컬러감이 부드럽고 고급스럽게 느껴진다. 봄 햇살에 화사하게 빛나는 필감이 살아 있는 소재로 톤다운된 의상과 잘 어울린다. 함병우 작품으로 로담.

볼에 닿는 바람이 상쾌하게 느껴진다면 오랫동안 함께했던 겨울 코트와 작별할 시간입니다. 웅크렸던 어깨를 펴고 굳게 닫혀 있던 창문을 열어줄 봄이 온 것입니다. 무채색의 겨울옷들을 정리하고 옷장 안쪽에 잠들어 있던 봄옷들을 꺼내어 옷장 맨 앞에 다시 걸어놓고, 두꺼운 목도리 대신 가벼운 스카프로 몸단장을 해보면 어떨까요? 색깔이 지나치게 화려해 부담스러운 옷보다는 은은함이 감도는 파스텔이나 화이트 의상에 옐로와 그린 컬러 액세서리로 감각을 업그레이드시켜 보세요. 작은 브로치를 옷 위에 살포시 매치하거나 반짝임이 아름다운 목걸이나 귀걸이로 산뜻함을 걸어주세요. 하나의 소품으로 스타일링 효과를 높이고 싶다면 컬러가 믹스된 소품보다는 단색의 것이 좋는데 봄에는 역시나 옐로와 그린입니다.

스타일리스트 최서윤(다락) 어시스턴트 손예희, 김아영, 이동욱 도움 주신 곳
공평아트숍(02-3210-0071), 아원공방(02-753-3482), KCDF갤러리(02-733-9041), 김혜영(02-2647-3773), 로담(02-722-1256), 나락실 주얼리(02-723-9426)



손으로 직접 꼬아 만든 작품으로 우리나라 전통 매듭인 방울매듭과 평매듭으로 끝에 달린 술과 방울이 포인트. 팔목을 위한 시계보다 멋진 소품으로 조은희 작품. KCDF갤러리.



반짝반짝 빛이 나는 푸른 장신구 펜던트와 옥빛의 나비 모양 펜던트가 호박 브로치 위에 살포시 달려 있다. 멀리서 보면 한 송이 꽃처럼 보이는 브로치는 율갤러리 작품으로 공평아트숍.



매우 가볍고 모양이 견고하게 잡히는 장편지로 만들었다. 특유의 재질감과 맑은 빛깔이 감도는 명함지갑으로 직접 놓은 테두리 스티치에서 손맛의 정성이 느껴진다. 김빈 작품으로 KCDF갤러리.



말을 탄 사람과 길을 걷는 선비 등 마상도를 그대로 넥타이에 옮겨놓았다. 비슷한 파스텔 톤 계열이나 화이트 셔츠와 잘 어울리며 무채색의 양복 패션에 포인트로 제격이다. 공평아트숍.



물결치는 듯한 형태감이 주는 디자인으로 컬러가 심플한 머플러나 재킷의 포켓 위에 꽂으면 모던한 감각까지 선사하는 브로치. 문춘선 작품으로 아원공방.



창호에 활짝 핀 꽃, 바로 꽃살문이다. 바로 이 꽃을 브로치에 담았다. 금속으로 문창살을 만들고 빛깔 담긴 꽃을 장식하여 전통의 삶이 있는 한국적 미감을 장신구에 담았다. 김혜영.



로맨틱한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핑크빛 진주와 호박 펜던트가 하트 모양으로 달린 목걸이는 네크라인이 살짝 파인 화이트 셔츠나 니트와 잘 어울린다. 나락실 주얼리.



물 위에 아름답게 떠 있는 연꽃과 유유자적 물길을 저어 나가는 두 마리 봉황이 그려져 있다. 한 손에 잡히는 크기로 핸드백 안 필수 소품인 손거울. 그렇 작품으로 공평아트숍.



옥의 다양한 컬러를 매치하여 그레데이션을 준 것이 특징인 원석 머리핀. 메탈 보디와 함께 시크한 매력을 풍긴다. 수작업의 정성이 그대로 느껴지는 권진영 작품으로 공평아트숍.

19세기 낭만 발레 그대로, 지젤

겨울을 온전히 털어냈다 싶을 때쯤 우리는 국립발레단의 고전 발레 <지젤>을 만나게 된다. 완전한 봄에 찾아온 선물과도 같은 무대다.

에디터 구분진 글 송지환 사진 국립발레단



지젤 Giselle

3월이면 강수진 예술감독이 이끄는 국립발레단이 선보이는 <지젤>이 예술의 전당 오페라극장에서 기쁨 있는 관객들을 만난다. 로맨틱시즘 발레의 탄생을 알렸던 파리 오페라발레단 버전(부예술감독 파트리스 바르 안무)으로 19세기 낭만 발레의 오리지널 무대를 충실히 살려낼 것이다. 의상은 라 스키타라 극장의 의상을 제작하고 있는 이탈리아 밀라노 브란카토 아틀리에에서 제작해 섬세하고 우아한 스타일을 선보인다.

음악 아돌프 야당 | 안무 파트리스 바르 | 연주 코리안심포니 오케스트라 |

지휘 주디스 안 | 예술감독 강수진 | 출연 국립발레단

3월 25일(문화가 있는 날) 1층석 5만원, 2층석 3만원, 3층석 5000원

3월 26~29일 A석 8만원, S석 6만원, A석 4만원, B석 2만원, C석 5000원

수~금요일 오후 7시 30분/ 토요일 오후 3시, 7시 30분/ 일요일 오후 3시

문의 국립발레단 02-587-6181

목가적 풍경의 마을에 춤을 사랑하는 처녀가 있다. 그곳에 사냥을 나왔다가 그녀에게 반한 백작 청년도 있다. 그는 신분을 속이고 마을에 기거하던 중 기회를 엿봐 사랑을 고백한다. 처녀는 청년에게 반했고, 못 이기는 척 프러포즈를 받아들인다. 이때 처녀를 연모하던 사냥꾼지기가 나타나 경고하지만 소용이 없다. 하지만 처녀는 자신의 연인이 이미 다른 귀족 가문의 딸과 약혼한 사이라는 걸 알고 충격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이후 유명이 된 처녀는 윌리(Wili, 처녀 귀신)들의 여왕으로부터 명을 받고 청년을 춤으로 유혹해 죽여야 할 처지에 놓인다. 아직 청년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한 처녀는 깊은 갈등에 휩싸인다.

처녀는 지젤이고 청년은 알브레히트다. 다분히 통속적이고, 지금의 기준으로 밋밋한 연애담이다. 그러나 여기에 고풍적인 안무와 극적인 음악, 빼어난 무대 연출이 가미된다. 국립발레단의 158회 정기공연 <지젤>은 그 완벽한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서양의 러브 스토리는 종종 마녀(귀신, 유령) 같은 판타지 캐릭터를 등장시켜 사랑의 기승전결을 드라마틱하게 전개하곤 한다. 바로 이러한 '낭만 발레'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지젤>은 아돌프 샤를 야당의 음악, 테오필 고티에와 쥘 앙리 베르누아 드 생 조르주의 공동 각본, 장 코랄리와 쥘 페로의 공동 안무로 1841년 프랑스 파리에서 초연됐다. 19세기

초 낭만주의 시대를 풍미한 낭만 발레는 '발레 로망티크'라고도 하는데, 환상과 신비를 추구하며 사랑 이야기 등 서정적 내용이 근간이다. <지젤>의 기원은 작품의 내용 못지않게 극적이다. 각본을 쓴 테오필 고티에는 시인, 소설가, 평론가, 극작가였다. 당시 최고의 발레리나로 꼽혔던 카를로타 그리지를 승배한 고티에는 그녀에게 맞춤형 캐릭터를 구상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프랑스 낭만파 시인 빅토르 위고의 시 '유령들'과 독일의 낭만주의 서정시인 하인리히 하이네의 시에 나오는 '윌리'라는 처녀귀신들을 제재로 스토리를 짠다(윌리는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하지 못하고 죽은 처녀의 정령인데 원한을 풀어 숲을 찾은 남자들이 밤새 춤추다 죽게 만드는 존재다). 그렇게 고티에는 극작가 생 조르주와 함께 독일의 전설을 주제로 한 발레 각본을 내놓았고, 초연의 타이틀 롤은 당연히 그리지에게 맡겼다. 첫 무대가 파리에서 크게 성공하자 <지젤>은 유럽 각국으로 퍼져나갔고, 러시아 황실 발레단에 의해 원형에 가깝게 보존될 수 있었다. 이후 세계의 발레 팬들을 만나면서 '새로운 해석을 거듭하며 흑인 무용가들이 등장하거나, 배경을 열대의 섬으로 옮기거나, 음악까지 바꾸하기도 했다. <지젤>의 핵심 가치 중 으뜸을 꼽으라면 단연 야당의 음악일 텐데 스토리나 캐릭터와의 조화에 무심했던, 즉 '단지 춤을 위한' 리듬 중심의

모음곡에 지나지 않았던 이전까지의 발레 음악을 전변시키는 결정적 계기를 그가 마련한 까닭이다. 야당은 캐릭터별로 독립된 선율을 창조했고, 그것을 스토리 전개에 맞게 변화시킨 '통합된 악곡'을 <지젤>에 적용했다. 야당의 이 기법은 이후 리하르트 바그너, 표트르 일리치 차이콥스키, 이고르 스트라빈스키 등 고전 음악 거장들의 영혼을 만나며 발레 음악의 풍성함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했다. <지젤>을 감상할 땐 지젤의 캐릭터 변화를 눈여겨보아야 한다. 사랑에 빠진 명랑 순박한 시골 처녀로서의 지젤, 사랑을 가슴에 품은 창백한 영혼의 지젤 그리고 알브레히트와 함께하는 아련한 사랑의 2인무가 작품의 백미다. 2011년 4월, 당시 스물한 살이었던 피겨 퀸 김연아는 러시아에서 열린 ISU 세계선수권대회 쇼트 프로그램에서 발레곡 '지젤'을 채택해 1위에 올랐다. 흑청(黑淸)의 조화가 아리따운 의상으로도 기억되는 김연아의 퍼포먼스와 함께 뉴스에 자주 오르내렸던 '지젤'은 모스크바에서 한국으로 '발레의 대중화'를 자극한 위대한 음악이기도 하다. 작품의 명성은 지구촌 곳곳에서 발레리나들의 선망을 부추겨, <백조의 호수> 오레트 공주나 <잠자는 숲속의 공주> 오로라 공주를 말하는 것처럼 <지젤> 속 지젤을 열망게 하고 있다. 고전 발레의 명작을 기다려온 팬들의 거센 관심은 물론이다. S

조화와 균형, 그 아름다움 Harmony and Balance

전체는 부분의 집합 그 이상이다. 각 부분은 긴밀하게 서로 연관을 맺고 있다. 모든 부분의 단순 합산이 아닌, 유기적인 총합이 곧 전체를 이룬다는 동양의 철학을 바탕으로 조화와 균형을 추구한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홀리스틱 뷰티, 설화수의 철학이다.

에디터 한혜진



어머니 대자연. 모든 것의 근원이며 모든 것을 포용하는 자연이 낳은 못 생명 역시 자연의 품에서 균형을 추구하며 조화롭게 살아간다. 흙 따로, 물 따로, 바람 따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요소가 조화와 균형을 통해 자연을 이룬다. 동양적 세계관의 정수(精髓, Essence)다. 이러한 전체론적인 관점은 곧 설화수의 철학이기도 하다. 모든 것이 유기적인 맥락으로 있고 맺고 합쳐져 전체를 이룬다는 동양 철학의 고갱이처럼, 설화수 철학의 출발점은 자연과 인간, 몸과 마음, 전통과 현대를 오롯이 함께 품고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어야만 진정한 아름다움의 핵심에 도달한다는 데 있다. 그러기 위해 설화수는 자연의 이치로부터 지혜를 얻었다.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온 한방성분은 설화수가 집약적으로 연구한 최신 피부 과학을 통해 자연을 닮은 아름다움의 도구로 재창조되었다. 내면과 외면을 가꾸어 총체적인 피부 솔루션을 제시하는 설화수는 인간이라는 유기체의 안팎이 균형 잡힌 아름다움을 좇는다. 자연을 포용하고 그 자연 안에서 인간과의 조화와 균형을 추구할 때 진실된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다. 자연의 이치로부터 지혜를 얻고, 자연의 원료에 근간을 두고 탄생한 설화수. 아시아 대표 홀리스틱 뷰티 (Holistic Beauty) 브랜드 설화수는 내면의 정갈한 마음가짐을 외면의 고운 자태로 승화시켜 더욱 강인한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S

Mother Nature. All lives born in nature, which is the origin of everything and embraces everything, live harmoniously in the arms of nature in a balance. Soil, water, and wind do not work separately, but all the elements come together in harmony and balance to compose nature. This is the essence of the oriental world view. This holistic perspective is also the principle of Sulwhasoo. The principle of Sulwhasoo starts from the idea that true beauty can only be achieved with the harmony and balance of nature and humans, body and mind, and tradition and modernity. For this purpose, Sulwhasoo has acquired wisdom from the law of nature. The Korean herbal medicinal formula handed down for thousands of years have been recreated as the tools of beauty that resembles nature through Sulwhasoo's latest comprehensive skincare science. Exploring the essential causes of skin problems beneath the surface to suggest ultimate skin solutions, Sulwhasoo pursues the balanced beauty of the organic bodies of mankind.

온종일 맑고 화사한 피부를 선물 받다

맑고 화사한 피부는 모든 여자들의 로망. 설화수는 피부 본연의 맑은 안색을 가꾸어 온종일 화사한 피부 빛을 선사하는 '퍼펙팅쿠션 브라이트닝'을 출시했다. <동의보감>에서 피부에 화사함과 윤택함을 가져다주는 성분으로 언급한 2가지, 피부를 화사하게 가꾸주는 목련 추출물과 맑고 영롱한 빛을 발하는 진주모 콤플렉스 성분을 함유한 제품으로 불필요한 유분을 가두고 흡수하는 '오일 캡처 시스템'을 도입해 매끈하게 밀착되는 마무리감을 자랑한다. 글로벌 뷰티 브랜드답게 다양한 피부색을 맞추기 위해 총 5가지 호수로 선보인다. 15g×2개, 6만5000원대.



남자들의 지친 피부에 희망을 주다

가꾸는 남자가 대세인 요즘, 남자들 역시 안티에이징에 관심이 높다. 이러한 니즈를 겨냥해 설화수에서는 남성의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외부 자극에 의한 피부 손상을 케어해주는 고보습 안티에이징 유액, 설화수 MEN '본윤유액'을 출시했다. 여성에 비해 외부 유해 환경에 노출되기 쉽고, 스트레스에 민감한 남성 피부를 위한 제품으로 일명 '비타민나무'로 불리는 산자나무 추출물을 함유해 남성 피부 장벽을 강화해주고, 피부 표면에 수분 보호막을 형성해 하루 종일 부드럽고 활력 넘치는 피부 컨디션을 유지시켜준다. 90ml, 5만2000원대.



예민한 눈가 피부를 다스리는 진설아이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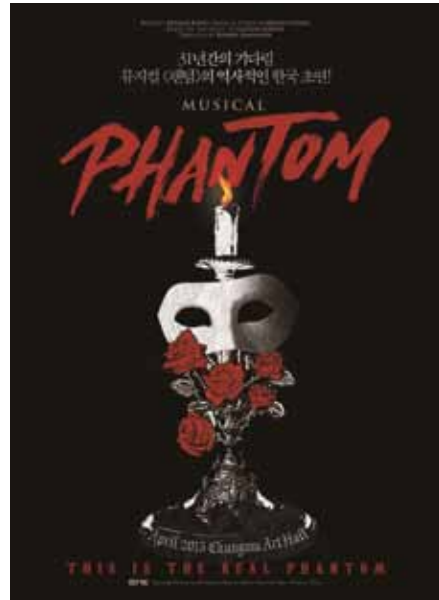
적송의 생명력으로 연약한 눈가 피부를 섬세하고 탄력 있게 다스리는 설화수의 '진설아이크림'이 2015년 새롭게 리뉴얼해 출시된다. 눈가 피부의 그늘과 주름을 케어하고 복합적인 고민을 해결해주는 주름개선 및 미백 이중 기능성 제품으로 적응에서 추출한 피부 생명 강화 안티에이징 성분인 'DAA(De-Aging Active)'를 비롯해 설화수의 인삼 과학 진세노믹스™의 결실인 'Compound K(홍삼 사포닌)'와 '진세노사이드 F1(백삼 사포닌)' 등 토털 안티에이징에 최적화된 성분을 함유해 눈가 피부 노화의 고민을 해결해준다. 25ml, 27만원대.



강한 생명력을 가진 적응의 힘을 영상으로 담다

모진 바람과 거센 빗방울, 혹독한 무더위와 눈보라가 반복되는 계절의 시련 속에서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푸르름을 지키고, 척박한 땅에서도 울창한 숲을 이루며 수천 년을 꿋꿋이 살아가는 귀한 적응의 모습을 그려낸 영상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적응으로부터 시작된 귀한 정수가 설화수의 노하우와 만나 안티에이징 효과를 선사하는 '진설'로 탄생하는 모습을 인상적으로 표현했다. 이 영상은 설화수 공식 웹사이트, 페이스북(www.facebook.com/sulwhasoo.co.kr)과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sulwhasookorea)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





Sulwhasoo 독자 선물

뮤지컬 <팬텀>을 관람할 수 있는 티켓을 선물로 드립니다. 독자엽서를 이용해 응모 가능하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98p 독자 선물 지면을 참조하세요.

뮤지컬 <팬텀>

가스통 르루의 소설 <오페라의 유령>을 충실히 무대로 옮긴 뮤지컬 <팬텀>이 올 4월 역사적인 한국 초연을 앞두고 있다. 국내외 다국적 제작진이 참여한 완성도 높은 무대로, 공연 전부터 팬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증된 실력과 극작가 아서 코핏과 작곡가 모리 에스틴의 작품인 뮤지컬 <팬텀>이 올 4월 충무아트홀 대극장에서 첫 공연된다. <마리 앙투아네트>, <황태자 루돌프>, <레베카>를 연달아 흥행시킨 연출가 로버트 요한슨, 2014년 뉴욕 포드 극장에서 오바마 대통령 갈라 공연의 음악 슈퍼바이저를 맡은 편곡자 킴 사른베르크, 국내 창작 뮤지컬의 주옥같은 넘버들을 탄생시킨 음악 감독 장소영, 뮤지컬 <레베카>의 안무가 제이미 맥다니엘, 작년 한 해 엄청난 인기몰이를 한 영화 <겨울왕국>의 의상 디자이너 그레고리 포플릭 등 다국적 제작진이 의기투합해 만든 작품으로 국내에서는 31년의 긴 기다림 끝에 초연돼 화제를 모았다. 완성도 높은 기존 작품에 음악과 무대, 의상 등 현대적인 세련미를 더하고, 특수효과 장비를 활용한 신비로운 작품의 분위기를 극대화할 예정인데, 특히 25곳의 대표적인 파리 거리와 3층으로 된 오페라 하우스를 재현하고, 정통 클래식 발레의 무대를 통해 마치 파리의 오페라 하우스에 온 듯 착각이 들 정도로 화려하고 풍성한 무대가 펼쳐질 것이다.

일시 2014년 4~8월 장소 충무아트홀 대극장 문의 02-6391-6333



마음을 울리는 스티브 바라캇 콘서트

20년 전 내한했을 때 보여준 한국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다시 한번 우리나라를 찾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스티브 바라캇. 오케스트라와 함께 더욱 웅장하고 꼭 한 무대로 다시 돌아왔다.

한국인의 귀와 마음을 사로잡은 클래식 아티스트 스티브 바라캇은 그동안 정명훈, 리처드 용재 오닐, 신영옥, 존박, 휘성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한국 아티스트와 협연해왔으며, 국내 공연 당시 팬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에 한국을 '투어에서 절대 빼놓지 않는 나라'로 언급할 정도로 애정을 드러낸 바 있다. 이번 공연은 인간의 삶을 16단계에 걸쳐 오케스트라로 구현하는 프로젝트 중 하나로 어린 나이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인정받은 후 전 세계를 여행하며 다양한 삶의 모습을 접해온 그가 인간의 탄생에서 죽음, 죽음에서 영원에 이르는 '삶' 자체를 주제로 한 공연을 선보인다. 이 오케스트라 작품은 2005년 9월 퀘벡 교향악단과 함께 세계 최초로 공연한 후 유럽, 미국, 아시아를 거쳐 2014년 차이코프스키 모스크바 콘서트홀에서 공연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인 찬사를 받았다. 이번 공연에서는 국내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AD Vitam Aeternam'에 이어 세계 최초로 'Rainbow Bridge', 'Flying', 'Eternity', 'Dreamers' 등 스티브 바라캇을 대표하는 주옥같은 곡들을 직접 편곡한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일시 3월 8일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문의 070-8248-6085

뮤지컬 <갯초>



세계 4대 뮤지컬 중 하나로 이번 내한공연은 최적의 음향 시설과 조명 시설을 갖춘 국내 대표 공연장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 <갯초> 오리지널의 감동을 더욱 깊이 있게 전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전 세계 30개국, 7300만 명 이상을 감동시킨 작품이다. **일시** 4월 10일 ~5월 10일 **장소** 세종문화회관 문의 02-3496-8882

뮤지컬 <마마, 돈 크라이>



전 시즌의 흥행을 이끈 송용진, 고영빈과 독보적인 매력의 김호영, 2015년 가장 주목받는 배우 서경수, 이동하, 이충주의 조합으로 열연을 펼칠 예정. 가장 이상적인 존재인 천재 물리학자와 가장 본능적인 존재 뱀파이어의 치명적인 캐릭터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일시** 3월 10일 ~5월 31일 **장소** 씨어터 문의 1577-3363

공연 <나초 두아토 멀티플리시티>



무용계의 아카데미상이라 불리는 '브누아 드 라 당스' 최고인무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세계적인 천재 안무가 나초 두아토의 탁월한 연기력이 돋보인다. '춤과 음악으로 보는 바흐의 일생'이란 타이틀이 말해주듯 두아토의 안무로 해석된 바흐의 음악은 명불허전이다. **일시** 3월 19~22일 **장소** LG아트센터 문의 070-7124-1737

책 <단>



50만 독자를 열광시킨 <훈·창·통의 저자 이지훈이 내놓은 신작. 너무 많은 물건, 정보, 관습에 둘러싸인 세상을 지적하며, 이런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으로 '단'이라는 화두를 내세우며 버리고, 세우고, 지키기 등 3가지 공식을 제시한다. 대가들의 인터뷰를 더해 깊이 있는 통찰을 보여준다. **지은이** 이지훈 **출판사** 문학동네

전시 <진경산수화-우리 강산, 우리 그림>



우리 국토 안에 있는 '진짜 경치'를 사색하며 참된 경치로 승화시킨 그림으로 이를 칭찬하고 절정으로 끌어올린 사대부 화가 정선부터 이에 영향을 받은 심사정, 이인상, 김홍도로 대표되는 정조원 화원까지 시대를 대표하는 화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일시** 5월 10일 까지 **장소** DDP 디자인 박물관 문의 1644-1328

연극 <경숙이, 경숙아버지>



2006년 초연된 명품 연극으로 6.25 전쟁에 가족을 버리고 혼자 피난길에 나선 경숙 아메, 남편에게 사랑받는 것이 평생소원이던 경숙 아메, 아메가 그린 경숙이 등 그 시대에는 지극히 당연했지만 현 시대에는 기이하게 느껴지는 가족의 인생을 그린다. **일시** 3월 6일 ~4월 26일 **장소** 수현씨어터 문의 02-766-6506

설화수를 사랑하는 독자를 위한 특별한 선물



설화수 윤조에센스(5명)

풍부한 촉촉함과 윤기를 더해 피부를 윤택하게 보필해주어 세안 후 처음에 사용하는 부스팅 에센스입니다. 저음단이 피부의 다섯 가지 균형을 바로잡아 속부터 촉촉한 윤기를 만들어줍니다. 문의 080-023-5454



뮤지컬 <팬텀> 관람권(4명)

완성도 높은 기존 작품에 현대적인 세련미를 더하고 첨단 장비를 활용해 신비로운 작품의 분위기를 극대화한 뮤지컬 <팬텀>의 5월 2일(토요일) 관람권을 4명(5석, 1인 2매)께 선물합니다. 티켓은 당첨자에게 개별적으로 보내드립니다.

(주)아모레퍼시픽 설화수 VIP 고객을 위한 고품격 고은여성문화지 Sulwhasoo는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여성 생활 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언제나 독자와 가까운 자리에 서 있고 독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고은여성문화지 Sulwhasoo 편집부 앞으로 독자 엽서를 적어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내용은 알찬 기사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칭찬보다 신선한 아이디어 제안과 따끔한 질책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독자 엽서를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응모 방법 고은여성문화지 Sulwhasoo 내의 독자 엽서로 우편을 이용해 응모
- 응모 마감 2015년 4월 15일까지
- 중정 선물 설화수 윤조에센스, 뮤지컬 <팬텀> 관람권
- 당첨자 발표 5/6월호 독자 선물 당첨자란 참조

2014년 11/12월호 독자 선물 당첨자 명단

김대현	경기 광명시 오리로	김홍심	광주 동구 산수2동	엄윤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김영숙	강원 춘천시 조양동	류난희	대구 북구 고성동3가	정향숙	충남 예산군 · 음 산성리
김유자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문일석	전남 여수시 여서동		
김정수	울산 북구 중산동	성애선	서울 양천구 신정6동		

2014년 11/12월호 당첨자 선물은 3월 31일까지 보내드립니다.

辨

雪花秀

열이 만든 칙칙함을 걷어내 얼굴 가득, 맑고 투명한 빛을 담다

화이트닝 케어를 꾸준히 해도 왜 피부는 계속 칙칙해 보일까요?
그것은 열로 인해 높은 콜라겐이 피부 속에 노란기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열이 만든 칙칙함을 지워, 맑고 투명한 피부를 완성하는 설화수 자정미백에센스 -
세계 최초 인삼 미백 성분을 함유한 자정삼백단™이 피부 깊숙이 스며들어
당신의 얼굴에 맑고 투명한 빛을 가득 담아 드립니다

근본에서 찾은 더 좋은 대답, 설화수 자정미백에센스

Sulwhasoo



Special Gift 엽서를 보내주시는 애독자 중 추첨을 통해 정성껏 마련한 Gift를 드립니다

통합엽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번호 _____

□ □ □ □ □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 부담
발송 유효 기간
2010. 9.1~2017. 9.1
서울 마포우체국
승인 제210호

받는 사람

서울시 마포우체국 사서함 117호

고은여성문화지 Sulwhasoo 담당자 앞

전화: 02-709-5401 팩스: 02-709-6339

1 2 1 6 0 0

Sulwhasoo



아모레퍼시픽 설화수의 고은여성문화지 Sulwhasoo는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보내주신 고객님의 의견은 고은여성문화지 Sulwhasoo를 만드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설문에 응해주신 고객님의께는 추첨을 통해 정성껏 마련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1. 펼치다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7	6	5	4	3	2	1
품격 있는 삶(8p)	7	6	5	4	3	2	1
피부 섬기기(12p)	7	6	5	4	3	2	1
동서고금이 만나다(16p)	7	6	5	4	3	2	1
新 공간을 보다(22p)	7	6	5	4	3	2	1
건너다(28p)	7	6	5	4	3	2	1

2. 누리다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7	6	5	4	3	2	1
설화인(36p)	7	6	5	4	3	2	1
어우러지다(42p)	7	6	5	4	3	2	1
설화풍경(48p)	7	6	5	4	3	2	1
설화보감(52p)	7	6	5	4	3	2	1
설화수를 말하다(58p)	7	6	5	4	3	2	1
디자인 기행(64p)	7	6	5	4	3	2	1

3. 익히다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7	6	5	4	3	2	1
배움의 기쁨(72p)	7	6	5	4	3	2	1
한국의 멋(78p)	7	6	5	4	3	2	1
읽다(82p)	7	6	5	4	3	2	1
설화에장(86p)	7	6	5	4	3	2	1
집 안 단장(88p)	7	6	5	4	3	2	1
몸 단장(90p)	7	6	5	4	3	2	1
마음 단장(92p)	7	6	5	4	3	2	1
설화 헤리티지(94p)	7	6	5	4	3	2	1

+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바랍니다.

1. 다음 호 Sulwhasoo에 더 적극적으로 실렸으면 하는 기사는? (해당 칸에 모두 체크해주세요)

- 전통 미용법 전통 의상 및 액세서리 등 패션 꾸밈 전통 생활문화
 한국의 미를 간직한 풍경 전통문화와 관련된 인물
 기타 _____

2. 독자 참여 선물 이벤트에 응모하시겠습니까? (98p 참조)

이름 _____ 성별 남 여 나이 _____
 주소 _____ 전화번호 _____

(선물에 당첨되면 해당란에 적어주시는 주소 및 전화번호로 개별 연락 드립니다)

+ 고은여성문화지 Sulwhasoo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웠던 부분과 불만스러웠던 부분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